

1980년대 노스탤지어에 나타난 가족 밖 친밀성과 그 양가성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을 중심으로

Intimacy Beyond the Family and Its Ambivalence in Nostalgia for the 1980s: Focusing on *Boyhood* and *A Hundred Memories*

김하린^{••}

국문요약 본 연구는 〈소년시대〉(쿠팡플레이, 2023)와 〈백번의 추억〉(JTBC, 2025)을 중심으로 1980년대의 일상적 고통이 가족 밖 관계를 통해 ‘함께 견딘 고생’의 기억으로 재구성되는 방식과 그 양가성을 분석한다. 두 작품은 가족과 이웃 중심의 기존 복고 서사와 달리 학교와 노동 현장의 또래·동료 관계를 위안의 준거로 삼는다. 본 연구는 공동 경험과 상호 선택에 기반해 보호·돌봄·상호부조를 수행하는 관계를 ‘가족 밖 친밀성’으로, 함께 겪은 고통이 공동체 형성과 관계의 지속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고생의 공동체화’로 개념화한다. 〈소년시대〉는 1989년을 배경으로 학교폭력의 수치를 희극화하고 복수의 카타르시스를 통해 또래의 결집을 생존과 인정 회복의 경로로 제시한다. 〈백번의 추억〉은 1982년과 1989년을 오가며 여성 노동 공동체의 우정이 공간의 해체, 계층 격차와 경쟁을 거쳐 재구성되는 과정과 돌봄이 혈연과 비혈연 관계 사이에서 재배치되는 양상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이를 각각 ‘인정 회복형 위안’과 ‘관계 지속형 위안’으로 규정한다. 두 유형은 서로 다른 경로를 취하지만 구조적 갈등보다 관계적 보상을 앞세우는 ‘관계적 봉합’으로 수렴한다. 이러한 봉합은 견딘 시간과 관계를 긍정하는 한편, 폭력적 위계와 착취적 노동, 계층 격차에 대한 문제의식을 후경화한다. 따라서 두 작품의 1980년대 노스탤지어는 2020년대의 관계적 결핍과 공명하면서 가족 밖 친밀성을 위안의 자원으로 소환하는 동시에 구조적 질문을 유예하는 양가적 문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핵심어 〈소년시대〉, 〈백번의 추억〉, 1980년대 노스탤지어, 가족 밖 친밀성, 고생의 공동체화, 관계적 봉합

- 차례**
1. 들어가며
 2. 〈소년시대〉: 박제된 시간과 남성 또래 공동체의 결집
 3. 〈백번의 추억〉: 돌아오는 시간과 여성 노동 공동체의 재구성
 4. 가족 밖 친밀성의 변형과 관계적 위안의 양가성
 5. 나가며

1. 들어가며

2020년대 한국 사회는 복합적인 불안의 시대를 통과하고 있다. 이러한 불안은 경제적·생활적 조건의 불안정에 그치지 않고,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둘러싼 여건의 변화와도 맞물린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가족이 수행해 온 돌봄과 교류 기능의 약화, 사회적 고립 위험의 확대와 연결되며¹ 주거불안은

• 이 논문은 2025년 대한민국 교육부와 한국연구재단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NRF-2025S1A5B5A19021253)이며, 연세대학교 제3회 한국학 협동과정 연구발표회에서의 발표문 “불안의 시대, 호출되는 과거: 2020년대 K-시대극의 디스토피아·노스탤지어 서사와 정동적 작동”을 수정·보완한 것임.

•• 연세대학교 한국학협동과정 박사과정

1 이윤석, 「관계 단절과 외로움, 고위험사회의 징후와 과제」, 이민주·이윤석·배보람·진상현·이현성·오현순,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 편, 『함께 회복력: 위기의 시대, 공존을 설계하다』,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2026, 37~62쪽.

비자발적 이동과 주거비 부담을 넘어 지역 공동체의 안정성과도 결부된다.² 고용 유연화와 플랫폼 노동의 확산 역시 동일한 일터를 매개로 지속되던 동료 관계의 조건을 재편한다.³ 이러한 변화가 가족·이웃·동료관계 또는 공동체의 소멸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관계를 안정적으로 형성하고 지속하도록 뒷받침해 온 사회적 기반이 흔들리면서, 개인이 관계를 새롭게 형성하고 유지해야 한다는 감각은 더욱 두드러지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대중문화가 반복적으로 제시하는 과거의 친밀한 관계망은 단순한 복고적 취향을 넘어 현재의 관계적 불안과 공명하는 문화적 상상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과거를 배경으로 하는 드라마에서 재현된 시간은 이미 지나간 현실을 그대로 옮겨 놓은 결과가 아니다. 역사적·시대적 배경은 동시대와 분리된 시간이라기보다 제작과 방영이 이루어진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되고 배열되며 그 과정에서 과거와 현재는 상호 참조된다. 최근 속은 TV드라마를 허구적 장르인 동시에 문화적 현실의 한 형식으로 보고, 시청자가 드라마에 공감하는 과정에서 드라마의 논리를 현실과 역사를 이해하는 인지적·정동적 틀로 내면화한다고 설명한다.⁴ 이는 시대극에서 과거가 현재와 분리된 폐쇄적 대상이 아니라 동시대의 감각과 문제의식이 투사되는 문화적 장으로 기능한다는 점을 시사한다. 레이먼드 윌리엄스(Raymond Williams)의 감정구조(structure of feeling) 개념 역시 특정 시대의 사람들이 공유하지만 아직 명료한 담론이나 제도로 정착되지 않은 경험과 감각을 문학과 예술 같은 텍스트를 통

해 포착할 수 있다⁵는 점에서 이러한 논의에 유효한 관점을 제공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노스텔지어는 행복했던 과거에 대한 단순한 그리움으로 한정되지 않는다. 스베틀라나 보임(Svetlana Boym)은 노스텔지어를 상실된 고향과 전통을 진실한 기원으로 상징하고 그것의 복원을 지향하는 복원적 노스텔지어(restorative nostalgia)와, 과거와 현재 사이의 거리, 상실의 파편성과 양가성에 머무르며 귀환의 불가능성을 의식하는 성찰적 노스텔지어(reflective nostalgia)로 구분한다.⁶ 이 구분은 노스텔지어를 단일한 감정으로 규정하기보다 과거를 선택하고 재구성하는 상이한 태도와 형식으로 이해하게 한다. 특히 대중서사에서 과거의 고통은 삭제되기보다 함께 견뎌 경험, 관계가 형성된 계기, 현재의 자신을 만든 시간으로 재의미화되면서 그리움의 대상이 될 수 있다. 이때 노스텔지어는 상실을 보상하는 감정인 동시에 무엇을 기억하고 무엇을 질문하지 않을 것인가를 결정하는 선택적 기억의 형식이 된다. 따라서 시대극이 반복적으로 호출하는 과거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재현되었는가뿐 아니라 현재의 어떤 필요에 따라 그 과거가 선택되고 어떤 요소가 전경화되거나 배제되었는가를 함께 살펴야 한다.

한국 대중문화에서 1980년대는 이와 같은 선택적 재구성이 반복되는 시대 중 하나이다. 1980년대는 권위주의적 통치와 국가폭력, 민주화운동, 산업과 도시의 급격한 변화가 중첩된 시기이지만 대중서사에서 언제나 동일한 모습으로 재현되지는 않았다. 2010년대에는 드라마에서 1990년대의 생활문화와 일상적 기억을 중심으로 한 복고가 두드러진 한편, 영화에서는 〈남영동1985〉(2012), 〈변호인〉(2013), 〈택시운전사〉(2017), 〈1987〉(2017) 등을 통해 1980년대의 민주화운동과 국가폭력이 상대적으로 직접 재현되었다. 이러한 흐름 속에

2 강승범, 『주거불안에 대한 가구 및 동네 수준의 취약성 분석: 한국복지패널과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최종보고서, 2024, 5~13쪽.

3 김병권·문종인·주정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데이터 라벨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서남권연구 2021-01),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 1~7쪽.

4 Choe, Key-Sook, "Media Cultur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Sympathy—Queen Seondeok: Dramatized Conspiracy Theory as 'Power-Narrativ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pp.113~114.

5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pp.132~135.

6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pp.41~56.

서 〈응답하라 1988〉(tvN, 2015)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시대적 사건을 배경화하고 가족과 골목 이웃의 일상을 전면에 배치함으로써 1980년대를 공동체적 일상의 기억으로 재구성한 대표적인 드라마 사례라 할 수 있다. 백소연은 이러한 재현이 가족을 중심으로 한 레트로토피아를 구축한다고 분석⁷하였으며 전종우·김연주·이종윤은 복고 드라마의 노스텔지어가 시청 만족과 몰입에 미치는 긍정적인 영향을 실증적으로 논의⁸하였다. 이들 연구는 1980년대 노스텔지어가 가족과 이웃 중심의 유토피아적 과거 구성과 정치사의 배경화를 통해 현재의 고통을 보상하는 방식임을 밝히고 그 과정에 내포된 탈정치화 효과를 비판적으로 지적해 왔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출발점이 된다.

2020년대에는 1980년대를 본격적인 서사의 시공간으로 삼는 드라마가 잇달아 등장하면서 그 재현 방식 역시 다양해졌다. 〈오월의 청춘〉(2021), 〈설강화〉(2021~2022), 〈오아시스〉(2023), 〈어쩌다 마주친, 그대〉(2023), 〈소년시대〉(2023), 〈애마〉(2025), 〈백번의 추억〉(2025) 등은 1980년대를 상이한 장르와 감정의 시공간으로 재구성한다. 본 연구는 이 가운데 국가적 거대 서사를 직접 재현하기보다 학교생활과 노동 경험, 일상적 관계를 전면화하는 〈소년시대〉(쿠팡플레이, 2023)와 〈백번의 추억〉(JTBC, 2025)에 주목한다.⁹ 두 작품은 모두 1980년대를 배경으로 또래·동료 관계라는 미시적 관계망을 서사의 중심에 놓는

다는 점에서 공통의 비교 지점을 갖는다. 특히 두 작품에서 이러한 관계는 결국 우정의 형식으로 조직되며, 가족이 아닌 또래와 동료가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핵심적인 위안의 관계로 제시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그러나 그 우정이 형성되고 의미화되는 조건은 서로 다르다. 〈소년시대〉가 남성 중심의 학교 공간에서 코미디의 장르적 문법과 성장·복수의 서사를 통해 남성 또래의 우정을 조직하는 반면, 〈백번의 추억〉은 여성 중심의 노동 공간에서 우정 멜로의 장르적 문법과 이별·재회의 서사를 통해 여성 동료의 우정을 조직한다. 따라서 두 작품의 비교는 가족 밖 친밀성이 고통을 관계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공통의 원리와 그 원리가 젠더·공간·장르·시간 구조의 차이에 따라 어떻게 변주되는지를 함께 살펴볼 수 있게 한다.

개별 작품 연구에서 문형준은 〈소년시대〉를 신데렐라 서사(상승-하강-상승의 곡선)를 따르는 레트로 학원폭력 물이자 변형된 남성 영웅 성장 서사로 규정하고 충청도성의 재현이 사투리와 느린 화법이라는 표층에 머무른다는 점을 지적하였다.¹⁰ 정명문은 〈소년시대〉가 코미디와 시청각적 거리두기를 통해 피해자의 고통에 대한 감정 이입을 차단하고 폭력을 낭만화한다고 비판하였다.¹¹ 반면 〈백번의 추억〉은 현재까지 확인한 범위에서 본격적인 학술적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따라서 두 작품을 동일한 비교 틀에 놓고 가족 밖 관계가 1980년대의 일상적 고통을 관계의 기억으로 의미화하는 상이한 방식을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전환의 핵심 매개를 설명하기 위해 본 연구는 두 개의 작업적 개념을 사용한다. 첫째, ‘가족 밖 친밀성’은 혈연·혼인과 같은 제도적 가족 관계가 아니면서

7 백소연, 「가족이라는 레트로토피아: 텔레비전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 한국극예술학회, 2019, 13~40쪽.

8 전종우·김연주·이종윤, 「복고 드라마의 노스텔지어가 드라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공연예술연구』 11(2), 청운대 방송예술연구소, 2016, 9~30쪽.

9 학교폭력과 노동 현장의 갈등은 1980년대에 국한된 현상이 아니라 오늘 날에도 지속되는 사회적 쟁점이다. 두 작품은 이러한 소재를 1980년대라는 시대적 기호와 결합함으로써 현재에도 이어지는 문제를 지나간 시대의 경험으로 재배치한다. 따라서 본 연구가 분석하는 것은 이러한 소재의 역사적 실상 자체가 아니라 시대극이라는 장르가 이를 특정한 과거의 시간 안에 위치시키고 정서적으로 조직하는 방식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1980년대의 일상적 고통’이라는 표현 역시 실제 1980년대의 일반적 현실을 규정하는 것이 아니라 두 작품이 해당 시기를 배경으로 재현한 고통의 조건을 가리킨다.

10 문형준, 「〈소년시대〉에 충청도는 있는가?: 레트로 학원 폭력물 서사로서의 〈소년시대〉에서 충청도성의 재현 및 한계」, 『문학이후』 4, 선문대 문학이후연구소, 2024, 49~50, 54~58, 66~71쪽.

11 정명문, 「〈소년시대〉에 나타난 폭력 재현과 모순: 레트로로 위장된 폭력의 낭만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79, 한국드라마학회, 2026, 196~218쪽.

도 공동의 경험과 상호적 선택을 바탕으로 보호·돌봄·상호부조·공동행동을 수행하는 친밀한 관계 형식을 가리킨다. 따라서 본 연구는 또래·동료 관계를 곧바로 새로운 ‘가족’으로 재명명하지 않으며, 관계의 명칭보다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하는 기능과 상호성이 가족의 경계 밖에서 어떻게 수행되는가에 주목한다. 그런 점에서 ‘가족 밖 친밀성’은 가족주의나 대안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라기보다, 과거 회상에서 공동체적 유대와 친밀성을 위안의 준거로 호출해 온 복고 서사의 정서적 연속선 위에서 그 관계적 중심이 가족 내부에서 또래·동료 관계로 확장되는 양상을 포착하기 위한 표현이다. 둘째, 본 연구는 폭력의 고통이나 노동의 고단함을 실제로 함께 겪고 서로를 보호하는 사건과, 그 사건이 사후적으로 유대의 기원이자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구분한다. 전자를 ‘고생의 공동 분담’이라 한다면 후자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고생의 공동체화’이다. 곧 ‘고생의 공동체화’는 고통 그 자체가 아니라 함께 겪은 고통이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회수되는 사후적 의미화의 과정을 가리킨다.¹²

앞서 살핀 감정구조와 노스텔지어에 관한 논의는 이 두 개념이 과거 재현과 맺는 관계를 설명하는 이론적 토대가 된다. 본 연구에서 노스텔지어는 지나간 현실을 그대로 복원하는 감정이라기보다 현재의 결핍과 필요에 대한 응답을 과거에서 모색하는 정동적 경로이자, 그 과정에서 과거의 특정 경험과 관계를 선택하고 정서적으로 배열하는 재현 형식으로 이해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 밖 친밀성은 위안의 중심으로 부각되는 관계 형식이며, 고생의 공동체화는 폭력과 노동의 고통이 그 관계의 형성과 지속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가리킨다. 이때 본 연구가 말하는 ‘양가성’은 가족 밖 친밀성 자체가 긍정적이거나 부정적이라는 뜻이 아니다. 이 관

계가 보호·돌봄·인정의 자원이 되는 동시에, 고통이 관계의 기억으로 회수되는 과정에서 그것을 필요하게 한 폭력적 위계와 착취적 노동 조건에 대한 질문이 관계의 온기와 회복에 대한 긍정 뒤로 물러날 수 있다는 두 방향이 함께 나타남을 의미한다. 이러한 양가성이 결말의 보상 구조에서 구체화되는 방식은 4장에서 ‘관계적 봉합’의 문제로 다시 살펴본다.

분석에서는 1980년대라는 시대적 배경 위에 배치된 학교폭력과 노동의 소재가 어떠한 조건과 장치를 거쳐 위안과 노스텔지어의 감각으로 제시되는지를 세 층위로 나누어 살펴본다. 첫째, 학교폭력과 체벌, 저임금 여성 노동, 가난은 작품이 인물의 삶과 관계를 규정하는 배경으로 재현하는 역사적·사회적 조건이다. 둘째, 오인과 코미디, 성장담, 우정과 돌봄의 관계 서사, 이별과 재회, 그리고 시간 점프나 폐쇄적 공간 구성은 이러한 조건을 특정한 방식으로 배열하고 의미화하는 서사적·형식적 장치이다. 셋째, 수치와 불안, 연민과 분노, 안도와 카타르시스, 그리움은 이러한 장치들이 시청자에게 제안하는 정서적 위치, 다시 말해 텍스트가 열어 두는 감정의 가능성이다. 이때 개별 감정의 목록보다 장치가 제안하는 정동의 이동 경로에 주목한다. 이 구분은 작품의 조건과 장치가 실제 수용자에게 동일한 감정을 자동으로 산출한다고 전제하는 인과 모형이 아니다. 본 연구는 텍스트가 제안하는 정서적 방향을 추적하기 위해 시간 구조, 공간 구성, 인물 관계와 결말의 보상 구조를 분석한다. 젠더·계급·지역은 공동체가 누구의 경험을 중심으로 구성되는지를 설명하는 조건으로 교차하여 고려되, 어느 하나를 최상위 설명항으로 두지 않는다.¹³

이를 통해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질문에 답하고자

12 전영진·김공숙,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 서사에 나타난 한국적 정서」, 『콘텐츠와산업』 7(5),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283~290쪽.

13 이 가운데 지역은 주로 〈소년시대〉의 폐쇄적 학교 공간과 남성 또래집단의 자족성을 설명하는 범위에서 다룬다. 본 연구는 선행연구에서 제기된 지역 타자화의 문제를 반복하여 논증하기보다 지역 기호가 학교를 외부로부터 분리된 소우주로 구성하는 방식에 한정하여 검토한다. 문형준, 앞의 글, 66~71쪽; 정명문, 앞의 글, 203~204쪽.

한다.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은 어떠한 서사적 장치와 관계의 문법을 통해 1980년대의 일상적 고통을 가족 밖 친밀성을 매개로 ‘함께 견딘 고생’의 기억으로 재구성하는가. 두 작품이 제안하는 ‘함께 견뎌’의 이미지는 어떠한 정서적 위치를 조직하며, 그 과정에서 학교폭력과 남성적 위계, 여성 노동과 계층 격차라는 구조적 조건은 어떻게 드러나거나 후경화되는가. 이를 위해 2장에서는 〈소년시대〉의 단일 시간 구조와 농업고등학교의 폐쇄적 공간, 코미디·성장·복수극의 성격이 남성 또래 관계의 형성과 노스탤지어적 의미화에 어떻게 맞물리는지 살핀다. 3장에서는 〈백번의 추억〉의 이중 시간 구조와 노동-생활 공간, 이별과 재회가 여성 동료 관계의 형성·단절·재구성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분석한다. 각 작품의 분석은 시간과 공간, 관계 변화와 정동의 흐름을 따라 전개하며, 이를 통해 가족 밖 친밀성의 형성과 과거의 고통이 관계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추적한다. 4장에서는 두 작품의 관계 문법과 정동적 전환 경로를 교차 비교하고 돌봄 기능의 재배치와 관계적 위안의 양가성을 검토한다. 결론에서는 분석 결과를 종합하고 1980년대 노스탤지어 드라마의 관계 재현과 정동적 작동을 밝히는 본 연구의 학술적 의의를 정리한다.

2. 〈소년시대〉: 박제된 시간과 남성 또래 공동체의 결집

2.1. 현재와 접속하지 않는 1989년

〈소년시대〉(이명우 연출, 김재환 극본, 총 10부작)는 1989년 충청도 부여를 배경으로, 학교폭력 피해자였던 장병태가 전학 간 부여농업고등학교에서 싸움꾼 ‘아산 백호’로 오인되며 벌어지는 소동극이다. 시간 구조의 측면에서 보면, 이 작품은 1989년이라는 단일한 시간 안에서 시작하고 완결된다. 매 회차의 내레이션을 18세 병태의 시점으로 진행되며 성인이 된 화자의 회고나 현재 시점

의 프레임은 제시되지 않는다. 이는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회상 구조를 통해 과거를 명시적인 추억의 대상으로 구성했던 〈응답하라〉 시리즈와 구별되는 형식적 선택이다. 성인 화자의 회고가 없기 때문에 1989년의 사건에 대한 현재적 성찰과 명시적 재평가의 틀은 약하며, 사건들은 주로 당시 인물의 시야 안에서 진행 중인 현재로 제시된다.

현재 프레임의 부재는 〈소년시대〉의 과거가 인물의 회고보다 텍스트가 배열한 복고 기호를 통해 구성되는 점과 연결된다. 이 작품은 성인이 된 병태가 과거를 그리워하는 서사를 제시하지 않지만, 음악과 소품, 사투리와 농촌 풍경을 집적하여 특정 연도로 환원되지 않는 익숙한 ‘과거 일반’의 감각을 조직한다. 이러한 점에서 〈소년시대〉는 인물의 향수를 중심에 둔 회고극이라기보다, 과거의 이미지와 스타일을 현재의 문화적 형식으로 재구성하는 제임슨적 의미의 ‘노스탤지어 양식’에 가깝다.¹⁴ 문형준은 당대의 역사적 맥락이 서사에 적극적으로 결합되지 않고 현재와 과거를 오가는 회상 구조도 부재한다는 점에서 〈소년시대〉가 노스탤지어를 추구하지 않는다¹⁵고 해석하였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형식적 특징에 관한 지적을 수용하면서도, 노스탤지어의 작동을 회상 구조나 역사적 맥락의 직접적 재현 여부에만 한정하지 않고 과거의 기호와 감각을 현재의 관점에서 선택·재배열하는 방식까지 포괄하여 이해한다. 따라서 〈소년시대〉의 노스탤지어는 인물의 회고보다 이러한 재배열을 통해 1989년을 익숙한 ‘과거 일반’의 감각으로 구성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노스탤지어적 구성은 서로 다른 시기의 기호가 혼재하는 방식에서도 확인된다. 정명문은 교복 규율과 대중문화 기호, 음악과 회차 제목의 시대적 불일치를

¹⁴ 프레드릭 제임슨, 임경규 역,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문학과지성사, 2022, 65~79쪽.

¹⁵ 문형준, 앞의 글, 53~54쪽.

근거로 이 작품이 특정 연도를 충실히 재현하기보다 여러 시대의 복고 기호를 혼합한다고 지적한다.¹⁶ 이를 고증의 성공이나 실패로만 판단하기보다 그러한 혼합이 만들어 내는 텍스트의 효과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서로 다른 시대의 기호가 동시에 배열되면서 1989년의 역사적 특수성은 약해지고 기억이 중첩된 ‘과거 일반’의 감각은 강화된다. 이러한 탈특정화는 1989년의 구체적인 역사적 맥락을 상대적으로 약화시키고, 코미디와 성장 서사를 통해 인물들의 소동과 활기가 전면화되는 과거의 무대를 구성한다.

이와 같이 <소년시대>의 1989년은 상실된 관계를 뒤늦게 되돌아보는 회상의 시간이라기보다 또래의 소동과 갈등, 결집이 진행되는 현재형 무대로 보존된다. 이러한 시간성은 과거에 대한 성찰적 거리를 확보하기보다 당시 인물들이 함께 겪고 행동하는 경험을 전면화하며, 이후 학교 공간에서 형성되는 또래 친밀성이 ‘회상된 관계’보다 ‘함께 건넌 관계’로 의미화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2.2. 폐쇄적 학교 공간과 방어적 친밀성

이처럼 현재 시점의 명시적 재평가가 약한 시간성은 충청도 부여의 농업고등학교라는 폐쇄적 공간 구성과 맞물린다. 과거의 사건이 당시 인물들의 현재로 제시되는 가운데 학교 안에서 반복되는 폭력과 갈등 역시 외부의 제도적 해결보다 학생들 사이의 관계와 행동을 통해 처리된다. 특히 작품 속 부여는 민주화와 올림픽 이후의 사회변동이 뚜렷하게 감지되기보다, 농업 실습과 지역

의 일상이 반복되는 농촌 공간으로 제시된다. 학생들의 생활은 축사 청소와 경운기 운행, 밭일 등의 농촌적 장면을 통해 제시되며, 부감 쇼트(high angle)는 이러한 농촌 정경을 강조한다. 동시에 학교는 교사와 학칙으로 대표되는 공식적 질서보다 주먹의 힘과 평판에 기반한 ‘짱’의 비공식적 위계가 더 두드러지는 폐쇄적 소우주로 구성된다. ‘백호는 17대 1의 싸움에서도 이긴다’는 전설과 그에 대한 오인이 서사를 추동한다는 점은, 이 공간에서 실제보다 소문과 상징적 지위가 학생 관계를 조직함을 보여준다.

극중에서 구타, 갈취와 조직적 상납이 반복되지만 피해자를 보호하거나 갈등을 조정하는 제도적 장치는 서사의 전면에서 나타나지 않는다.¹⁷ 교사들은 주로 체벌의 집행자이거나 희극적 배경으로 배치되고, 갈등은 학생들의 세계 안에서 발생하고 해결된다. 이처럼 외부의 개입이 주변화된 공간 구성은 폭력 사건을 공식적인 해결 절차로 넘기기보다 소동극과 성장담의 문법 안에서 처리한다. 이러한 자족적 공간성은 폭력을 외부의 제도적 문제보다 학생들 사이의 갈등과 성장의 문제로 수렴시키며, 이후 또래의 결집과 복수가 주요한 대응 방식으로 제시될 수 있는 조건을 마련한다.

이 폐쇄성은 지역 재현의 한계와도 맞물린다. 문형준은 충청도성이 사투리를 중심으로 한 표층적 기호에 머문다¹⁸고 지적하며, 정명문은 이 시공간이 도시 중심의 시선에서 낙후된 일종의 구경거리로 구성될 수 있음을 비판¹⁹한다. 특히 외부에서 전학 온 병태와 경태가 서로 다른 방식으로 지역 학생들의 관계와 서열의 중심에 배치되는 반면, 지역의 인물들은 이들이 활동하는 희극적 배경으로 주변화된다. 이러한 지역 기호는 부여와 학교를 외부 제도와 거시사로부터 분리된 소우주로 구성하

16 정명문은 작품에 등장하는 교복 검사와 복장 규율이 실제 1989년보다 1980년대 초의 규율 문화를 연상시키며 프로레슬링과 쿵푸·이소룡 등 일부 대중문화 기호는 1970년대의 문화적 기억에 기대고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삽입곡의 발매 시기 또한 극중 배경 연도와 일치하지 않으며, 각 회차의 제목은 1960년대부터 2022년까지 서로 다른 시기의 영화와 드라마 제목을 차용한다. 정명문은 이러한 시대적 혼합을 근거로 작품의 과거가 1989년 자체보다 ‘과거의 분위기’를 지향하는 시대적 판타지에 가깝다고 지적한다. 정명문, 앞의 글, 201~203쪽.

17 위의 글, 199쪽.

18 문형준, 앞의 글, 66~71쪽.

19 정명문, 앞의 글, 204쪽.

고, 그 안에서 또래의 공동 대응이 이루어질 공간적 조건을 마련한다. 따라서 정겨운 로컬리티로 양식화된 부여는 복고적 분위기를 형성하는 배경인 동시에, 인물들의 관계를 폐쇄적인 폭력 질서 안에 위치시키는 공간적 장치로 기능한다.

바로 이 자족적이고 폐쇄적으로 구성된 공간 안에서 병태와 또래들은 함께 폭력을 감내하고 품앗이를 통해 상납금을 마련하며 복수를 도모하는 남성 또래 공동체를 형성한다. 이 과정에서 개별적으로 감당하던 폭력과 상납의 부담은 함께 마련하고 대응해야 할 공동의 문제로 전환된다. 이들의 유대는 서열 구조 자체를 해체하기보다 그 질서 내부에서 서로를 보호하고 살아남기 위한 방어적 생존 전략으로 조직된다.

이러한 공간 구성에서 또래 관계의 친밀성은 단순한 우정의 정서보다 고통과 부담을 함께 감당하는 행위로 구체화된다. 가족이나 학교 제도가 폭력 해결의 중심 주체로 기능하지 않는 상황에서 친구들은 서로를 보호하고 필요한 부담을 분담하며 공동으로 대응한다. 이러한 행위는 또래 관계가 보호·상호부조·공동행동의 기능을 수행하는 가족 밖 친밀성으로 조직되는 방식을 보여준다. 이때의 친밀성은 폭력 질서의 외부에 마련된 안정된 피난처라기보다, 그 내부에서 서로의 취약함을 감당하고 대응하는 방식으로 성립한다.

2.3. 수치의 희극화와 지연된 카타르시스

앞의 두 절에서 살핀 단일 시간 구조와 폐쇄적 학교 공간은 수치와 분노를 처리하는 서사적·형식적 장치와 결합한다. 〈소년시대〉에서 노스텔지어와 가족 밖 친밀성의 접점은 단순히 ‘옛날에는 친구들이 함께 있었다’가 아니라, 폭력의 고통이 또래의 결집을 매개로 웃음과 복수, 인정 회복의 기억으로 재의미화되면서 과거의 관계가 위안의 자원으로 부각된다는 점에 있다. 1장에서 제시한 작업적 구분에 따르면, 〈소년시대〉에서 학교폭력과

남성 위계는 인물 관계를 규정하는 조건이며 오인과 슬랩스틱 코미디, 성장·복수의 서사는 이를 특정한 정동의 방향으로 배열하는 서사적·형식적 장치이다. 이러한 정동적 배열의 출발점은 오인에 의해 병태에게 부여된 강자 정체성이다. 학교폭력 피해자인 병태는 전학과 동시에 ‘아산 백호’라는 기호를 부여받고, 실제 없는 강함을 유지하기 위해 그 역할을 수행한다. 그의 강함은 실력이 아니라 소문이며, 진짜 백호 경태의 전설적 싸움과 병태의 어설픈 몸짓이 유사한 구도로 병치될 때 텍스트는 둘 사이의 불일치를 웃음의 대상으로 제시한다. 이 설정은 주먹 서열이 존중을 결정하는 남성적 위계를 코믹하게 비틀지만 그 서열 자체의 해체로 나아가지는 않는다. 작품은 그 위계 자체를 비판의 대상으로 삼기보다, 그 안에 우연히 편입되었다가 추락한 병태의 성장과 재기에 초점을 맞춘다.

병태의 서사 전체는 오인된 정체가 만들어 내는 웃음과 그 정체의 탄로 가능성에서 비롯되는 불안 위에서 진행된다. 텍스트는 병태의 허세를 웃음의 대상으로 제시하는 동시에 언제 발각될지에 대한 불안을 지속적으로 조성한다. 웃음과 불안은 동일한 장면에서 중첩되며 이러한 이중성은 후반부에 정체가 드러나 병태가 추락할 때 웃음이 굴욕의 정동으로 전환되는 국면을 예비한다. 따라서 이 작품의 코미디는 고통을 지우기보다 병태의 추락을 예고하면서도 그 시점을 지연하여 웃음과 불안의 긴장을 지속시키는 장치에 가깝다.

작품은 병태의 대사를 통해 폭력 피해의 부당함을 직접적으로 언어화한다. 4회에서 병태가 조직적 상납을 반대하며 돈을 빼앗긴 사람을 대변하는 발화(“니들 돈 뺏겨 봤어? 그 초라한 기분을 아냐고”)를 계기로 병태의 영향력은 주먹의 힘에 대한 오인을 넘어 약자들의 지지로까지 확장된다. 이 대사가 호명하는 것은 물질적 손실이 아니라 ‘초라함’, 곧 수치이다. 이 작품에서 수치는 폭력 피해가 병태로 하여금 스스로를 위축되고 초라한 존재로 인식

하게 하는 감정으로 제시되며, 그의 자기 인식과 사회적 위치가 훼손되는 방식과 연결된다. 그러나 피해자로서의 경험을 떠올리며 상납에 반대했던 병태는 점차 데이트 비용을 마련하기 위해 다른 학생의 돈을 빼앗거나 연적에 대한 폭력을 지시하는 등 ‘아산 백호’라는 지위에서 비롯된 힘을 사적으로 이용한다. 정체가 발각된 이후 다시 폭력과 상납 요구에 시달리게 되자, 자신보다 약한 친구 호석을 의자로 내려치기도 한다. 이처럼 피해 경험에서 비롯된 공감의 언어와 가해의 행위는 병태의 위치 변화에 따라 한 인물 안에서도 교차한다. 또래집단은 병태의 고통에 공감하고 그의 재기를 돕지만, 그 지원은 서열 구조를 변경하기보다 병태가 다시 힘을 획득하여 그 안에서 대응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따라서 또래의 결집은 피해자를 보호하는 관계적 자원이며서도, 복수의 과정에서는 폭력에 폭력으로 맞서는 대응 방식을 공유함으로써 힘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

이러한 모순과 함께 작품의 핵심적인 정동적 변환은 병태가 언어화한 수치를 시청각적으로 처리하는 방식에서 나타난다. 정명문이 지적하듯 작품은 병태의 멍들고 상처 입은 얼굴을 콧물과 망가진 표정의 클로즈업을 통해 우스꽝스럽게 제시하는 반면, 병태의 폭력 장면에는 느린 화면과 음악을 더하여 세련되고 우월한 남성성을 부여한다.²⁰ 이러한 시청각적 대비는 피해자의 내면적 고통보다 인물 간 외형적 차이를 전면화하며 병태의 피해를 희극적 관찰이 가능한 거리에서 제시한다. 이는 단순한 감정이입의 차단을 넘어 ‘수치의 희극화’로 이해할 수 있다. 앞서 병태가 언어화한 초라함은 그의 신체에 새겨지는 순간 콧물과 일그러진 표정이라는 희극적 기호로 번역된다. 수치는 피해자의 내면에 머무르기보다 관찰 가능한 외형의 훼손으로 외재화되고 그 훼손은 희극적 관찰의 대상으로 제시된다. 이러한 변환은 수치

스러운 과거를 노스텔지어적 재현 안에 다시 배열하는 방식과도 연결된다. 고통이 희극적 장면으로 가공되면서 수치 역시 과거의 복고적 이미지와 감각 속에 재배치되기 때문이다. 이때의 수치는 회고를 중단시키는 감정이 아니라 웃으며 되돌아볼 수 있는 경험으로 재배치된다. 또한 병태와 친구들이 함께 상납금을 마련하고 폭력을 감내하며 이후 복수에 가담하는 과정에서 폭력은 개별 피해의 경험이나 내면적 고통을 넘어 집단의 결속을 확인하는 계기로 의미화된다. 다만 함께 폭력을 감내하는 장면들이 제안하는 정동은 활기보다 연민과 비장함에 가깝고 텍스트는 이를 통해 폭력의 시간을 또래의 의리를 증명하는 기억으로 의미화한다. 그 결과 또래 관계가 제공하는 위안과 구조적 폭력에 대한 질문의 후경화가 동일한 장치 안에서 함께 나타난다.

결말은 이러한 양면성을 집약한다. 후반부의 복수극은 약자들의 연대를 통해 이루어지지만, 결국 폭력 구조의 개선보다 서열의 재편으로 귀결된다. 정동의 층위에서 보면 복수극이 조직하는 것은 서사 내내 축적된 분노의 지연된 방출이다. 병태와 친구들이 겪은 갈취와 구타, 굴욕은 그 순간마다 해소되지 않은 채 유예되며, 결말의 승리는 그 유예된 분노가 한꺼번에 방출되는 자리로 설계된다. 문제는 이 방출의 경로가 고발이나 처벌과 같은 제도적 언어보다 주로 신체적 승리에 의존한다는 점이다. 마지막 회의 내레이션에서 병태가 폭력을 막으려면 직접 나서야 한다고 결론 내리는 장면은 피해자 스스로가 힘을 얻어야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인식을 제시하며 힘의 우위를 해법으로 승인한다.²¹ 이에 따라 폭력 질서는 해체되기보다 병태가 그 질서의 우위에 자리하는 방식으로 유예시키며 잠정적인 안정을 얻는다. 그럼에도 결말이 제공하는 카타르시스가 강력한 것은 그것이 앞서 축적된 수치와 분노를 정확히 되갚아주기 때문이며, 바로 그 정동적 만족이 ‘왜 이 분노는 다른 방식

20 정명문, 앞의 글, 207~209쪽.

21 위의 글, 212쪽.

으로 해소될 수 없었는가'라는 질문을 불필요하게 만든다. '그 시절에도 힘들었지만 함께 견뎠다'는 확인이 힘의 논리에 대한 비판을 후경화할 때 또래의 의리는 폭력적 질서를 변화시키는 언어가 아니라 그 질서 안에서 함께 살아남았음을 확인하는 기억의 자원이 된다.

요컨대 <소년시대>에서 노스텔지어적 위안은 폭력이 없었던 과거의 복원에 있지 않다. 학교폭력의 수치와 무력감은 또래와 함께 견딘 경험으로 재배열되고 폭력의 기억은 또래의 의리와 인정 회복의 기억으로 회수된다. 이 과정에서 가족 밖 친밀성은 고통을 함께 감당하고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게 하는 관계적 자원이자 과거의 고통을 관계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노스텔지어의 핵심 매개가 된다. 다만 그 대응이 폭력 질서의 내부에서 이루어지고 힘의 논리에서 완전히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서 이러한 위안은 양가적이다.

3. <백번의 추억>

: 돌아오는 시간과 여성 노동 공동체의 재구성

3.1. 이중 시간 구조와 관계의 재의미화

<백번의 추억>(김상호 연출, 양희승·김보람 극본, 총 12부작)은 1982년 인천과 1989년 서울을 배경으로, 100번 버스의 안내양으로 함께 일하다 헤어진 뒤 7년 만에 재회하는 고영례와 서종희의 우정과 성장을 그린다. 전체 서사는 1982년 인천의 1막(1~6회)과 1989년 서울의 2막(7~12회)으로 나뉘며, 6회의 결정적 사건²²을 경계로 7년의 시간 점프가 이루어진다. 1982년은 권위주의적 사회 분위기와 버스 안내양의 고된 노동 속에서 동료 관계가 형성

되는 시기로 그려진다. 반면 1989년은 민주화 이행과 서울올림픽 이후의 도시적 활기 속에서 서로 다른 삶으로 이동한 인물들이 경쟁과 재회를 경험하는 시기로 제시된다. 이처럼 작품은 1980년대를 단일한 시간으로 묶기보다 노동과 친밀성이 형성되는 시간과 이별 이후 변화한 삶에서 관계를 다시 선택하는 시간을 교차하여 배열한다.

이 구조가 만들어 내는 일차적 효과는 이른바 '노스텔지어 속의 노스텔지어'라고 할 수 있는, 과거 내부에 다시 회고의 층위를 형성하는 두 겹의 회고이다. 방영 시점의 시청자는 1982년과 1989년의 인물들을 모두 과거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동시에, 작품 안에서는 1989년의 인물들이 1982년의 '그 시절 우리'를 되돌아보는 장면을 보게 된다. 에필로그가 1990년까지 이어지지만 방영 시점의 현재와 접속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작품은 과거 내부에 여러 시간 층위를 만들고 그 안에서 관계의 의미를 재평가한다. <소년시대>가 1989년의 사건을 당시 인물들이 경험하는 현재로 제시한다면, <백번의 추억>은 1989년의 인물들이 1982년을 되돌아보게 함으로써 과거 내부에 제한적인 성찰의 거리를 마련한다.

이러한 구성은 1회와 12회의 내레이션이 이루는 수미상관에서 압축된다.²³ 1회의 "그 시절의 너, 나, 그리고..."가 미완의 나열을 통해 관계 형성의 가능성을 열어 둔다면 12회의 "그 시절의 너, 나, 그리고 우리"는 고단했던 개별 인물들의 시간이 '우리'의 기억으로 수렴했음을 보여준다.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마지막 선언은 과거의 노동 공동체가 해체된 뒤에도

22 6회에서 안내양들은 개문 발차 사고의 책임을 회피하는 회사에 맞서 집단 행동에 나서고, 그 과정에서 영례가 노무과장의 폭력에 노출된다. 종희는 영례를 구하기 위해 노무과장을 가격한 뒤 그가 사망한 것으로 오인하여 도피하고, 이 사건은 두 사람의 이별과 1막 노동 공동체의 해체를 동시에 초래한다.

23 "이 이야기는 그렇게 시작된다. 청춘이었으나 고단하고 남루했던, 그러나 또 서로가 있었기에 반짝반짝 빛이 났던, 찬란했던 그 시절의 너, 나, 그리고..."(1회 中)

"이 이야기는 이렇게 끝이 난다. 청춘이었으나 고단하고 남루했던, 그러나 또 서로가 있었기에 반짝반짝 빛이 났던, 찬란했던 그 시절의 너, 나, 그리고 우리. 남은 삶의 시간들 속에서 파도와 격랑에 또 아프고 아물고 울고 웃겠지만 두려움은 없다. 우리는 늘 함께일 것이기에. 그리하여 어쩌면 우리의 이야기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12회 中)

그 관계가 이후의 삶 속에서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한다. 이 수미상관은 고단하고 남루했던 과거를 서로가 있었기에 찬란했던 시간으로 재의미화하며 고통의 조건보다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기억의 중심에 놓는다.

그러나 인물들이 과거를 받아들이는 태도는 동일하지 않다. 마지막 회의 미스코리아 대회 장면에서 ‘추억이란 무엇인가’라는 사회자의 질문에 종희는 추억을 “떠나버린 버스”로 규정²⁴하며 되돌릴 수 없는 과거와 거리를 두고 현재와 미래로 나아가려는 태도를 드러낸다. 반면 영례는 떠난 버스도 돌고 돌아 다시 올 수 있다²⁵고 말하며 시간의 비가역성을 인정하면서도 미완의 관계를 현재에서 다시 이어갈 가능성을 남긴다. 두 발화는 ‘떠난 시간은 되돌릴 수 없다’는 전제를 공유하지만, 종희가 1982년을 종결된 시간으로 정리하려 한다면 영례는 그 시간에 남겨진 미완의 감정을 현재에서 다시 의미화하고 응답하려는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차이는 어느 한쪽의 성숙이나 미숙으로 환원되기보다 과거와 관계 맺는 상이한 태도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 차이의 근저에는 1막에서 해소되지 못한 관계적 부채가 놓여 있다. 종희는 영례를 보호하려다 노동 공간과 일상의 관계망에서 이탈하고 영례는 종희가 떠난 뒤 사건을 덮어 친구를 보호한다. 서로를 지키려 했던 행위가 시차를 두고 오갔지만 갑작스러운 이별로 미안함과 고마움을 전하지 못한 채 7년 이후에 재회한다. 따라서 재회 서사를 추동하는 감정은 단순한 그리움보다 미안함과 고마움이 뒤섞인 관계적 부채감에 가깝다. 영례가

24 “(추억이란) 떠나버린 버스입니다. 떠난 버스는 아무리 잡으려고 해도 되돌아오지 않으니깐요. 그래서 저는 과거를 추억하는 대신에 현재에 충실하고 미래를 궁금해 할 것입니다.”(12회 中 종희의 대사)

25 “(타임머신이 나타난다면) 저는 과거 버스안내양을 했던 그 시절로 돌아가고 싶습니다. 그 시절이 저에게는 가장 빛나는 청춘의 한 자락이었고, 저한테 가장 소중한 친구를 만났던 때이기도 하거든요. ... (타임머신을 타고 그 시절로 돌아간다면) 그 친구를 꼭 안아주고 싶습니다. 그때는 미처 알지 못했던 그 친구의 마음에 그러지 않아도 된다고. 나 때문에 너가 불행해지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미안하고 또 고맙다고 말해주고 싶습니다. 떠난 버스는 되돌아오지 않지만 그 자리에서 묵묵히 기다리면 돌고돌아 반드시 다시 돌아온다고 꼭 이야기해주고 싶어요.”(12회 中 영례의 대사)

돌아가고 싶다고 말하는 이유 역시 과거의 생활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기 위해서라기보다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에 뒤늦게 응답하기 위해서라고 볼 수 있다.

다만 이러한 성찰의 대상은 관계의 미완에 집중된다. 영례가 되돌아보는 것은 자신을 지키고 떠난 친구와 당시 건네지 못한 응답이며 노동의 구조적 조건 자체는 아니다. 작품이 버스 안내양 시절을 ‘가장 빛나는 청춘’으로 호명할 때 노동의 고단함은 삭제되지 않지만 그 시절의 의미를 최종적으로 규정하는 것은 함께였던 관계이다. 따라서 시간의 비가역성을 인식하고 미완의 관계를 다시 바라보는 성찰적 계기는 마련되지만, 이러한 재평가가 노동 조건과 계층 구조에 대한 질문으로까지 확장되는지는 별도의 문제로 남는다.

따라서 〈백번의 추억〉에서 노스텔지어는 1982년의 생활을 원형 그대로 복원하려는 욕망보다 그 시절 맺어진 관계를 1989년에서 다시 읽고 미완의 감정을 현재화하는 방식으로 작동한다. 이러한 시간적 거리는 〈소년시대〉에서 1989년이 현재형 무대로 보존되어 공동 경험 자체가 전면화된 것과 달리, 이미 끝난 관계를 다시 바라보고 그 의미를 재구성하게 한다. 이에 따라 〈백번의 추억〉의 친밀성은 함께 있었던 순간의 결집에 머무르지 않고, 단절된 뒤에도 그 관계를 어떻게 기억하고 다시 선택하는가의 문제로 확장된다.

3.2. 노동-생활 공간과 돌봄의 친밀성

이처럼 회고의 중심이 노동 조건 자체보다 관계의 미완에 놓이는 것은 1982년의 노동-생활 공간이 단순한 배경이 아니라 친밀성을 형성한 조건으로 기억되기 때문이다. 1막의 핵심 무대인 100번 버스와 차고, 기숙사는 여성 노동의 고단함이 반복되는 공간인 동시에 동료 관계가 형성되는 생활의 공간으로 제시된다. 버스는 안내양이 장시간 서서 승객과 마찰하며 일하는 이동노동의 장소이고, 기숙사는 노동 이후의 일상을 함께 보내며

서로의 취약함을 확인하는 생활 공간이다. 버스에서 차고와 쉼터, 기숙사로 이어지는 공간적 연속성은 노동과 생활의 경계를 좁히며 여성 노동자들의 일상을 밀도 높은 관계망으로 구성한다. 이처럼 동일한 노동 조건 아래 반복되는 공동 경험은 직장이라는 제도적 소속을 넘어 고통의 분담을 보호와 돌봄의 관계적 실천으로 확장한다.

그러나 이러한 친밀성은 평등하고 자율적인 관계 위에서만 형성되는 것은 아니다. 친밀성을 가능하게 한 물질적 토대 자체가 여성 노동자의 일상까지 관리하는 통제적 노동 체제이며, 기숙사 역시 공동생활의 기반인 동시에 회사와 사감의 통제, 연차와 서열에 따른 선후배 위계가 노동자의 생활에까지 미치는 공간이다. 따라서 작품 속 가족 밖 친밀성은 통제와 위계가 사라진 공간에서 자연스럽게 성립하는 관계라기보다, 그러한 조건을 공유하는 인물들이 때로는 그 질서를 반복하면서도 서로를 보호하고 지지하는 관계로 변화해 가는 과정에서 형성된다. 이처럼 돌봄의 친밀성은 통제적 조건에 대응하는 관계적 자원이지만 그 조건으로부터 완전히 분리된 것은 아니다.

이 공간에서 안내양들이 겪는 고통은 육체적 소모와 승객의 폭언, 성희롱, 몸수색의 위협으로 나타난다. 이때 핵심적인 감정은 자신의 몸이 임의로 침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데서 오는 모멸이다. 작품은 이러한 모멸을 개인이 홀로 감당하는 사건으로 남겨 두지 않고 동료의 시선과 개입을 반복적으로 배치한다. 승객과 회사의 황포 앞에서 서로를 감싸고 노동을 마친 뒤 기숙사에서 상처를 살피는 장면들은 취약함을 고립된 피해의 경험에서 돌봄과 보호의 관계가 형성되는 계기로 전환한다. 1막에서 동료들이 만원 버스에서의 육체적 소모와 승객의 폭언, 가난을 함께 겪고 서로를 보호하는 과정은 ‘고생의 공동 분담’에 해당한다. 이때 고통은 관계를 파괴하는 경험으로만 남지 않고 서로의 취약함을 확인하고

돌봄을 주고받게 하는 공동 경험으로 조직된다.

그러나 7년의 시간 점프 이후 버스·차고·기숙사라는 공유 공간은 해체되고 인물들은 서로 다른 직업과 사회적 위치로 이동한다. 그럼에도 1982년에 함께 겪은 경험은 단절된 관계를 다시 잇는 기억의 자원으로 남는다. 1막에서 함께 감당한 고통이 2막에서 관계의 지속과 공동체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회수될 때, ‘고생의 공동 분담’은 본 연구에서 말하는 ‘고생의 공동체화’로 전환된다. 이에 따라 친밀성의 기반 역시 일상적으로 함께 일하고 생활하는 공간에서 과거를 함께 견뎌낸 기억으로 이동한다. 작품은 이를 통해 한 번 형성된 유대가 물리적 공간과 제도적 소속이 사라진 뒤에도 기억과 재선택을 통해 지속될 수 있다는 상상을 제안한다. 떠난 버스가 돌고 돌아 다시 온다는 순환의 비유는 이러한 관계의 지속 가능성을 압축한다.

이러한 구조에서 노스텔지어가 회수하는 것은 버스 안내양 노동의 고단함 자체라기보다 그 안에서 형성된 돌봄과 상호의존의 기억이다. 2장에서 본 〈소년시대〉 역시 공유된 고통을 또래 결속의 기억으로 만들지만 학교라는 공유 공간과 관계가 서사 끝까지 함께 유지된다. 반면 〈백번의 추억〉은 노동 공동체의 공간을 해체한 뒤에도 1982년의 관계가 1989년을 해석하는 기억의 기준으로 남는 과정을 보여준다. 따라서 〈백번의 추억〉에서 가족 밖 친밀성의 핵심은 같은 공간 안에서의 결집 자체보다, 공간과 사회적 위치가 달라진 뒤에도 그 관계가 기억을 통해 지속되고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데 있다.

3.3. 이별·재회·경쟁을 통과한 관계의 재선택

공유 공간이 해체된 뒤에도 친밀성이 지속될 수 있는 가는 2막의 이별과 재회를 통해 새로운 문제로 제기된다. 1막의 노동 공동체는 회사의 책임 회피에 맞선 집단 행동으로 확장되지만 노무과장의 폭력과 종회의 도피

를 계기로 급작스럽게 해체된다.²⁶ 이별은 개인적 오해나 자발적 이동이 아니라 동료를 보호하려는 행위가 노동 현장의 폭력적 대응과 충돌한 결과이다. 종희는 영례를 지키는 과정에서 일터와 친구, 재필과 이어질 가능성²⁷을 함께 잃으며 영례에게는 자신을 보호한 대가로 삶의 터전을 떠나게 한 친구에 대한 부채감이 남는다. 이에 따라 2막의 재회는 과거 우정의 단순한 복원이 아니라, 달라진 사회적 위치와 새로운 욕망을 마주한 뒤에도 서로의 관계를 현재에서 다시 선택해 가는 과정으로 조 직된다.

이별 이후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경로의 사회적 이동을 겪는다.²⁸ 영례가 노동 경험과 직업적 숙련의 축적을 통해 점진적으로 이동한다면 종희는 도피 끝에 재벌가의 수양딸이 되는 멜로드라마적 신분 비약을 경험한다. 이 대비는 두 사람을 동일한 노동 조건을 공유하던 동료에서 서로 다른 사회적 위치에서 과거의 관계를 다시 마

주하는 인물로 바꾼다. 종희의 수양어머니가 두 사람을 떼어놓기 위해 영례의 일자리에 개입한다는 설정은 새롭게 형성된 계층적 차이가 두 사람의 관계에도 직접 개입할 수 있는 조건이 되었음을 보여준다.

재회의 초기에는 일기장이 단절된 시간을 잇는 매개로 기능한다. 종희가 건넨 일기장은 7년 동안 품어 온 그리움과 두려움, 죄책감을 영례에게 전달한다. 뒤이어 영례가 종희의 도피 이후 노상식을 압박해 사건이 드러나지 않도록 했던 사실이 회상을 통해 제시되면서 두 사람의 보호 행위는 한쪽의 일방적인 헌신이 아니라 시차를 두고 오간 상호적 행위로 드러난다.²⁹ 그러나 이러한 상호성의 확인이 곧바로 관계의 완전한 회복으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다.

직원과 VVIP 손님으로 마주한 장면은 7년 사이 벌어진 계층적 거리를 가시화한다. 영례에게는 다시 만난 종희를 향한 반가움과 함께 달라진 삶에서 비롯된 낯센과 착잡함이 겹친다. 반면 종희에게는 도피와 함께 잃어버린 관계의 연속성에 대한 그리움과 결핍감이 두드러진다. 종희가 재필과 다시 시작하려는 선택은 첫사랑의 회복뿐 아니라 과거의 양보와 도피로 중단된 삶의 연속성을 되찾으려는 욕망으로도 읽을 수 있다. 이처럼 재회 이후의 갈등은 삼각관계와 미스코리아 대회라는 경쟁 구도를 통해 드러나지만, 그 근저에는 서로의 현재를 통해 확인하게 되는 7년의 거리와 각자의 결핍이 놓여 있다. 따라서 두 사람이 다시 관계를 선택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것은 경쟁의 승패 자체라기보다, 재회 이후 드러난 거리와 결핍이다.

26 6회의 중심 사건은 5회 후반부에 제시된 개문 발차 사고에서 시작된다. 사고로 동료 안내양이 한쪽 다리를 잃지만 회사가 책임을 회피하자 영례와 안내양들은 파업에 나선다. '키다리 아저씨' 정현은 기자들을 불러 이들의 집단행동을 지원하고 안내양들은 결국 요구를 관철한다. 그러나 그 직후 노무과장 노상식은 영례에게 요급 명령의 누명을 씌우고 보복성 폭력을 행사한다. 종희는 영례의 목을 조르는 노상식을 만년필로 공격하고 그가 피를 흘리며 쓰러지자 영례의 말에 따라 도피한다. 종희가 눈 내리는 거리로 사라진 뒤 서사는 7년 후로 이동한다.

27 종희는 늘 주변을 먼저 챙기던 영례가 재필을 좋아해 왔음을 알고 자신의 마음을 감춘 채 재필과의 관계를 거부한다. 이 결정은 이후의 도피를 예상하고 이루어진 것이 아니지만, 노무과장 사건이 뒤이어 발생하면서 재필과의 인연 역시 해명할 기회조차 없이 갑작스럽게 끊긴다. 이처럼 종희는 영례를 위해 재필과의 관계를 포기하고 이어 영례를 보호하려다 도피함으로써 사랑과 일상의 관계망을 잇달아 잃는다. 두 사건은 서로 다른 계기에서 이루어졌지만 같은 회차에 연이어 배치되며 종희의 이별이 지닌 비극성을 강화한다. 다만 종희가 재필에게 품었던 감정과 영례를 위해 그 관계를 거부한 동기는 영례에게 명시적으로 공유되지 않는다. 이 정보는 시청자에게만 알려진 채 두 인물 사이에 비대칭적으로 남는데, 이는 영례의 부채감이 종희가 감내한 것 전부가 아니라 그중 자신이 인지한 몫에 대해서만 형성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28 영례는 버스안내양을 그만둔 뒤 주리미용실의 스태프 디자이너로 일한다. 종희의 수양어머니 양미숙의 개입으로 해고된 뒤에는 미헬뷰티살롱의 직원이 되고, 미용 세미나에서의 모델을 계기로 미스코리아에 출전하게 된다. 한편 종희는 노상식을 찌르고 야반도주해 서울의 한 호텔에서 일하던 중 딸을 잃고 자살을 시도한 대양그룹 회장 양미숙을 구한다. 이후 그의 수양딸이 된 종희는 대학에 진학하고 미스코리아 출전을 준비하는 위치로 이동한다.

29 영례와 종희는 7년 뒤 영례가 근무하는 주리미용실에서 직원과 VVIP 손님으로 다시 마주한다. 종희는 과거를 꺼리는 수양어머니를 의식해 영례를 모르는 척하지만, 그날 밤 영례를 집으로 초대해 그동안의 사연과 그리움을 털어놓는다. 헤어질 때 종희가 영례를 생각하며 쓴 일기장을 건네고 돌아가는 버스에서 영례는 자신을 향한 그리움과 함께 도피 이후 종희가 안고 살아온 두려움과 죄책감을 뒤늦게 읽는다. 착잡함 속에서 영례는 종희가 떠난 이후 노상식의 횡령 자료를 찾아 입원해 있던 그를 압박함으로써 종희의 일을 덮고 친구를 지키려 했던 지난날을 떠올린다.

미스코리아 대회는 두 사람의 관계가 경쟁의 국면에 놓이는 과정을 가시화하는 동시에 서로 다른 사회적 이동의 경로를 한 무대에 교차시킨다. 종희에게 이 대회는 1막부터 품어 온 개인적 꿈을 현실화하고 도피 이전의 자신과 다시 연결되는 무대인 반면 영례에게는 미용 노동의 과정에서 예기치 않게 주어진 기회이다. 따라서 두 사람에게 동일한 경쟁은 서로 다른 삶의 경로가 우연히 교차하는 장면이기도 하다. 한편 이 무대는 여성의 외모와 신체를 공식적으로 심사하는 제도라는 한계를 지닌다. 1막에서 노동 과정에서 타인의 통제와 검사의 대상이 되던 여성의 신체가 2막에서는 성취와 인정이 부여되는 무대 위의 신체로 재배치되지만, 그 인정 역시 외모를 심사하는 제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점에서 젠더화된 인정 구조의 한계는 남는다.

결말에서 관계를 다시 잇는 결정적인 계기는 경쟁의 승패나 로맨스의 정리가 아니라 상호 보호의 반복이다. 1막에서 종희가 영례를 지키다 사라졌다면 마지막에는 영례가 종희를 대신해 칼에 찔린다. 이러한 대칭은 과거 종희의 보호에 현재 영례의 보호가 응답하는 구조를 만들며, 두 사람이 질투와 앙금을 해소하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선택하는 계기로 기능한다. 영례가 생존한 뒤 두 사람이 함께 바닷가로 향하는 마지막은 계층적 차이가 사라졌다는 결론보다 그 차이에도 불구하고 서로의 관계를 다시 선택할 수 있다는 믿음을 제시한다. 따라서 〈백번의 추억〉의 우정은 공유 공간과 동일한 생활 조건에 의해 자연스럽게 지속되는 관계가 아니라, 이별과 사회적 이동, 계층적 거리와 경쟁을 통과한 뒤 변화한 서로를 다시 받아들이는 관계로 재구성된다.

요컨대 〈백번의 추억〉에서 관계의 재선택은 과거의 상태로 돌아가는 복원이 아니라, 7년 사이 달라진 삶과 서로의 차이를 통과한 뒤 관계를 현재에서 다시 맺는 과정이다. 이 점에서 작품이 제안하는 위안은 같은 공간에서 계속 함께하는 데 있기보다, 한때 단절되고 서로 다

른 위치로 이동한 관계도 다시 선택될 수 있다는 가능성에 놓인다.

4. 가족 밖 친밀성의 변형과 관계적 위안의 양가성

4.1. 인정 회복과 관계 지속의 위안

앞선 두 장에서는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이 1980년대의 학교와 노동 현장에서 가족 밖 친밀성을 형성하고 개인의 고통을 공동체의 기억으로 전환하는 방식을 각각 살펴보았다. 이를 바탕으로 4장에서는 두 작품의 공통된 변환 원리와 상이한 정동적 경로를 역사적·사회적 조건, 서사적·형식적 장치, 텍스트가 제안하는 정서적 위치의 세 층위에서 교차 비교한다. 구체적으로는 어떠한 조건에서 가족 밖 친밀성이 형성되는지, 그 안에서 경험한 고통이 어떠한 시간 구조와 공간 구성, 장르적·서사적 장치를 거쳐 공동체의 기억으로 재배열되는지, 그리고 이러한 전환이 어떠한 위안을 조직하며 그 과정에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갈등이 어떻게 배치되는지를 살펴본다. 이는 1장에서 제시한 세 층위의 분석틀을 두 작품의 비교 절차로 구체화한 것이다. 앞선 분석을 바탕으로 한 전체 비교 구도는 〈표 1〉과 같다.

〈표 1〉에서 확인할 수 있듯이 두 작품은 가족 밖 관계를 위안의 기반으로 소환하고, 고통을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회수한다는 공통의 변환 원리를 공유한다. 다만 그 과정에서 관계가 수행하는 기능과 고통이 이동하는 정동적 방향은 서로 다르다. 〈소년시대〉가 폭력적 위계 속 남성 또래집단의 방어적 결집을 통해 훼손된 인정을 회복한다면, 〈백번의 추억〉은 노동 공간의 해체와 계층적 분리, 경쟁을 통과한 여성 우정의 재구성을 통해 단절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는 관계를 위안의 중심에 놓는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두 작품의 위안은

〈표 1〉 분석의 세 층위에 따른 두 작품의 비교

분석 층위	〈소년시대〉	〈백번의 추억〉	비교 결과
역사적·사회적 조건	1989년 농업고등학교의 학교폭력과 체벌, 주먹 서열 중심의 남성 위계	1982년과 1989년의 여성 노동, 착취적 노동 환경과 노동-생활 공간의 통제, 계층 격차	고통을 생산하는 구조는 다르지만 가족 밖 관계가 생존과 돌봄의 기반으로 형성됨
서사적·형식적 장치	현재와 접촉하지 않는 단일 시간, 오인과 코미디, 폐쇄적 학교 공간, 성장·복수극과 지연된 카타르시스	이중 시간 구조, 이별과 재회, 공유 공간의 해체, 회고·경쟁·상호 보호·재선택	과거의 고통을 현재적 비판보다 관계의 기억과 위안으로 재배열함
텍스트가 제안하는 정서적 위치	수치와 불안에서 분노의 지연된 방출을 거쳐 인정 회복과 방어적 안도로 이동	모멸과 취약성에서 애착·상실·부채감을 거쳐 관계 지속의 믿음으로 이동	인정 회복형 위안과 관계 지속형 위안이 관계적 통합으로 수렴함

각각 ‘인정 회복형 위안’과 ‘관계 지속형 위안’으로 유형화할 수 있다.

두 유형의 차이는 고통이 어떠한 감정을 경유해 공동체의 기억으로 의미화되고, 그 과정에서 어떠한 위안으로 조직되는가에서 선명해진다. 〈소년시대〉에서 병태의 수치는 폭력적 남성 위계 안에서 자기 인식과 사회적 위치가 훼손되는 경험과 결부된다. 작품은 이를 희극적 외형으로 번역하고 서사적으로 축적된 분노를 복수극의 지연된 카타르시스로 방출함으로써 병태가 무력한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훼손된 인정을 회복하는 방향으로 수렴시킨다. 반면 〈백번의 추억〉에서 안내양들의 모멸은 신체가 임의로 침해되고 평가될 수 있다는 취약성에서 발생한다. 작품은 모멸의 순간마다 동료의 개입을 반복 배치하고, 이별 뒤 남은 부채감을 재회와 상호 보호의 서사로 재배열하면서 단절된 관계가 현재에도 이어질 수 있다는 믿음을 조직한다.

따라서 〈소년시대〉의 위안이 위계 바깥의 해방보다 위계 내부에서의 지위와 자기 회복에 무게를 둔다면 〈백번의 추억〉의 위안은 취약함을 함께 감당한 관계가 공유 공간의 해체 이후에도 지속될 수 있다는 감각에 놓인다. 전자는 고통과 거리를 두는 희극화를 경유해 인정 회복

의 자궁으로, 후자는 고통받는 인물에게 정서적으로 밀착하는 우정·재회 서사를 경유해 관계 지속의 믿음으로 이동한다. 그러나 두 경로 모두 고통을 제거되어야 할 사건으로만 남기지 않고 관계의 진정성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회수한다는 점에서는 동일하다.

시간성의 배치도 이러한 차이를 강화한다. 〈소년시대〉의 단일 시간은 오인과 추락, 복수와 재기로 이어지는 성장 곡선을 현재의 명시적 재평가 없이 닫힌 시간 안에서 완결하며 병태 개인의 재기를 전경화한다. 반면 〈백번의 추억〉의 이중 시간은 함께였던 시절과 이별, 달라진 삶과 재회를 중첩하여 1989년의 인물들이 1982년의 관계를 다시 해석하고 이어 가는 과정을 중심에 놓는다. 특히 미스코리아 장면에서 영례가 돌아가고 싶은 이유로 개인적 성취가 아니라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을 꼽는 것은 이 차이를 압축한다. 이에 따라 전자의 위안은 병태가 더 이상 무력한 피해자로 남지 않았다는 방어적 안도에, 후자의 위안은 단절된 관계가 소멸하지 않았음을 확인하는 데서 오는 안도에 가깝다. 〈소년시대〉가 현재 시점의 회고 프레임을 두지 않는다는 점은 폭력 질서의 해소 여부를 텍스트 내부에서 재평가하기보다 시청자의 판단에 남겨 둔다는 점에서도 이 차이를 강화한다.

한편 두 작품은 로맨스를 통해 가족 밖 관계의 가치가 젠더화된 승인 구조와 맺는 방식에서도 차이를 보인다. 〈소년시대〉에서 여성 인물의 시선은 병태의 위계적 지위와 성장을 확인하거나 지원하는 장치로 배치된다.³⁰ 〈백번의 추억〉에서는 영례의 지속적인 돌봄이 재필의 선택을 통해 보상된다는 한계가 남지만 공동체적 가치

30 〈소년시대〉에서 병태-지영-선화의 삼각관계는 진짜 ‘아산 백호’ 경태의 등장으로 사각관계로 확장된다. 선화의 관심은 병태가 학교의 ‘똥’으로 인식될 때 그에게 향하지만 병태의 정체가 드러난 뒤에는 실제로 폭력을 행사할 능력과 위계적 지위를 지닌 경태에게 이동한다. 이와 달리 지영은 병태의 지위와 무관하게 그를 보호하고 훈련시키며 성장 서사를 지원한다. 그러나 두 여성 인물 모두 궁극적으로는 병태의 위계적 상승과 성장을 확인하거나 보조하는 위치에 배치된다.

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것은 남성의 선택보다 영례와 종희가 반복적으로 수행하는 상호 보호이다.³¹ 그러나 두 유형의 위안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치면서도 각각 여성 인물에 대한 남성의 선호와 승인을 경유하여 성립한다는 점에서 특정한 젠더 질서를 공유한다. 다만 이를 젠더 단독의 효과로 환원하기는 어렵다. 〈소년시대〉의 위계는 남성 학교 공간과 코미디·복수극의 장르 관습이, 〈백번의 추억〉의 관계 중심성은 여성 노동 공간과 우정 멜로의 문법이 함께 강화한 결과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노스텔지어는 성중립적인 감정이라기보다 젠더가 공간의 조건 및 장르 관습과 교차하며 관계 윤리와 정동의 방향을 조직하는 사회적 형식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이상의 비교를 종합하면, 두 작품은 공통적으로 가족 밖 친밀성을 노스텔지어의 중심에 놓으면서 과거의 고통을 가족 밖 관계의 기억으로 회수하지만 그 기억이 제공하는 위안의 방향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소년시대〉가 ‘함께 전되며 대응한 관계’의 기억을 통해 인정 회복의 위안을 구성한다면, 〈백번의 추억〉은 ‘헤어진 뒤에도 다시 이어질 수 있는 관계’의 가능성을 통해 관계 지속의 위안을 구성한다.

4.2. 돌봄 기능의 재배치와 가족 경계의 재구성

가족 밖 친밀성이 두 작품에서 어떠한 기능을 하는지 확인하려면 혈연가족이 서사에서 수행하는 역할을 함께 살펴야 한다. 〈소년시대〉에서 병태의 부여 전학은 아버지의 불법 댄스 교습소 문제로 인한 야반도주에서 시작되지만, 이를 가족 전체의 실패로 일반화하기는 어렵다.

그럼에도 가족은 병태의 학교폭력을 함께 인지하고 처리하는 돌봄 주체로 기능하지 않으며 실질적인 대응이 또래집단으로 이동한다. 병태가 상납금의 부당함을 토로할 때 동원하는 것도 ‘아부지 돈 못 벌고 어머니 썰매지게 고생하는’ 가난한 가족의 형상, 곧 지켜야 할 대상이지 기댈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가족이다. 병태의 곤경을 실질적으로 함께 감당하는 역할은 품앗이로 돈을 모으고 함께 맞으며 복수에 동참하는 친구들에게 배분된다. 따라서 학교폭력이라는 위기에서 보호와 고통의 분담, 공동행동의 기능은 가족보다 또래집단을 중심으로 수행된다.

〈백번의 추억〉에서도 가족은 결핍이나 보호의 한 방향으로만 제시되지 않는다. 영례의 혈연가족은 학업 대신 생계를 보태야 할 책임을 부과하는 조건이지만 사랑과 온기를 제공하는 관계이기도 하다. 종희는 이러한 가족적 온기를 영례의 자존감과 타인을 돌보는 태도의 기반으로 인식하며 자신에게는 주어지지 않은 관계적 자원으로 부러워한다. 따라서 두 사람의 차이는 현재의 계층적 위치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삶을 지탱해 온 관계적 기반이 서로 달랐다는 데에도 놓여 있다. 반면 종희의 혈연가족은 더욱 직접적인 위협으로 나타난다. 부모가 사망한 뒤 오빠 종남은 경마로 집안 재산을 탕진하고 종희에게 폭력을 행사하며 종희가 집을 떠나도록 만드는 원인이 된다. 이에 비해 기숙사의 동료들은 아픈 이를 살피고 위기에서 함께 행동하며 서로의 상처를 들어주는 방식으로 일상적 돌봄과 정서적 지지를 수행한다. 또한 영례의 오빠인 영식은 종희가 혈연이나 입양의 형식 밖에서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고 정서적 안정을 얻을 수 있는 ‘오빠 같은’ 존재로 기능한다. 이처럼 〈백번의 추억〉은 혈연 여부 자체에 돌봄과 보호의 가치를 고정하기보다, 서로 다른 관계 안에서 보호·책임·폭력·돌봄의 기능이 상이하게 수행되는 모습을 제시한다.

종희의 입양은 이러한 관계 기능의 재배치를 보다 복

31 〈백번의 추억〉의 재필-종희-영례의 삼각관계에서 재필은 처음에는 종희에게 이끌리지만 7년 동안 자신의 곁을 지켜 온 영례에 대한 감정을 뒤늦게 자각하고 그와 연인이 된다. 이 결말은 영례의 지속성과 성실함에 서사적 보상을 부여하지만 작품의 관계 질서를 최종적으로 확정하는 사건은 로맨스의 성립이 아니라 영례가 종희를 대신해 갈에 찢리는 상호 보호의 반복이다. 이에 따라 영례와 재필의 연애가 유지되는 가운데 종희가 두 사람 곁으로 돌아오면서 삼각관계는 선택과 배제, 혹은 승자와 패자의 구도로 종결되지 않고 우정과 연애가 공존하는 관계로 재조정된다.

합적으로 보여준다. 가족 밖으로 이탈했던 종희가 양미숙의 수양딸이 되어 다시 법적 가족의 형식에 편입되면서 입양 가족은 보호와 계층 이동의 기반이 된다. 그러나 수양어머니가 영례와 종희의 관계를 통제하고 영례의 일자리에까지 개입한다는 점에서 가족의 제도적 보호는 후견과 통제를 함께 수반한다. 중요한 것은 이러한 입양이 작품의 핵심적인 친밀성을 다시 가족 안으로 회수하지는 않는다는 점이다. 종희가 새로운 가족에 편입된 이후에도 위안의 중심을 이루는 영례와 종희의 관계는 혼인이나 입양을 통해 가족으로 재명명되지 않은 채 우정으로 지속된다. 따라서 이 작품에서 가족 경계의 재구성은 비혈연 관계가 모두 새로운 가족이 되는 과정이라기보다, 제도적 가족 안팎의 여러 관계가 돌봄과 보호의 기능을 서로 다르게 수행하는 과정에 가깝다.

이러한 특징은 가족과 골목을 위안의 중심에 놓았던 〈응답하라 1988〉과 비교할 때 더욱 분명해진다. 〈응답하라 1988〉에서는 부모 세대의 희생과 이웃 간의 정이 고생을 분담하는 핵심 관계로 제시되며 가족이 레트로토피아의 중심축을 이룬다.³² 특히 백소연이 지적하듯 이 작품의 유사가족적 연대는 동성동본과 겹사돈이라는 현실적 장벽을 넘어서까지 혼인을 통해 제도적 가족 안으로 다시 수렴한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의 경계를 근본적으로 이탈하지 않으며, 보수적 가족 개념의 재건에 가깝다. 이에 비해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에서는 학교와 노동 현장에서 형성된 또래와 동료 돌봄과 공동행동의 일부를 수행하게 하면서도 이 관계를 반드시 혈연이나 혼인의 형식으로 회수하지 않는다. 가족의 존재 자체가 약화된다고보다, 가족이 담당해 온 것으로 여겨졌던 ‘함께 건디는 관계’의 기능이 가족 밖의 우정과 동료애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차이는 기존의 비혈연 공동체 논의와 비교할 때 본 연구에서 말하는 ‘가족 밖 친밀성’의 성격을 보

다 분명하게 한다. 전영진·김공숙은 〈승리호〉에서 혈연으로 연결되지 않은 인물들이 상호 신뢰와 희생, 연대를 통해 대안적 가족공동체를 이루는 과정을 가족주의적 정서의 확장으로 해석한다.³³ 그러나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의 또래·동료 관계는 부모와 자녀의 역할 분담이나 부양·상속과 같은 가족 내부의 구조를 모사하거나 하나의 가족 단위로 재구성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들의 관계를 대안가족의 형성으로 보기보다 가족이 수행해 온 보호·돌봄·상호부조·공동행동의 일부가 제도적 가족의 경계를 넘어 또래와 동료 관계에서도 수행되는 경우로 이해하는 편이 적절하다. 가족이라는 제도적 형식은 유지되지만, 돌봄과 위안을 제공할 수 있는 관계의 범위는 그 바깥으로 확장되는 것이다.

이러한 관계 기능의 이동은 최근 가족서사 연구가 포착한 변화와도 접점을 갖는다. 백현미는 〈나의 아저씨〉를 통해 가족다움의 근거가 혈연이나 혼인보다 돌봄과 상호의존의 실천으로 이동하는 ‘이후의 가족드라마’를 논의하였고,³⁴ 이대범은 〈걸어도 걸어도〉에서 혈연적 계승의 균열 이후에도 비혈연 관계를 통해 관계의 지속 가능성이 모색되는 양상에 주목한다.³⁵ 이들의 논의가 가족의 재구성이나 계승 자체를 중심에 둔다면, 본 연구가 강조하는 것은 가족으로 재명명되는가보다 가족의 경계 밖에서 형성된 관계가 고통의 분담과 돌봄, 지속의 기능을 어떻게 수행하는가이다. 〈소년시대〉의 또래 관계가 폭력적 위계 안에서 보호와 인정 회복의 기반이 되고, 〈백번의 추억〉의 우정이 공유 공간의 해체 이후에도 재회와 재선택을 통해 이어진다는 차이에도 불구하고, 두 작품은 모두 가족 밖 관계가 삶의 위기를 함께 감당할 수 있는 관계적 자원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33 전영진·김공숙, 앞의 글, 283~290쪽.

34 백현미, 「『이후의 가족드라마』와 친밀의 정동: 〈나의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9, 한국극예술학회, 2023, 89-91쪽.

35 이대범, 「기억의 정치와 가부장제의 계승: 〈걸어도 걸어도〉(2008)와 〈국제시장〉(2014)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11), 한국콘텐츠학회, 2025, 249~250쪽.

32 백소연, 앞의 글, 33~34쪽.

결국 두 작품에서 나타나는 변화는 가족의 소멸이나 비혈연 관계에 의한 가족의 대체라기보다, 돌봄과 보호, 고통의 분담과 정서적 지지 같은 ‘가족적인’ 기능이 여러 관계 사이에 분산되고 재배치되는 데 있다. 이때 가족 밖 친밀성은 대안가족의 또 다른 이름이 아니라 가족적 돌봄의 일부가 제도적 가족의 경계를 넘어 수행되는 관계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이러한 재배치는 가족과 골목 공동체의 친밀성을 위안의 중심에 두었던 기존 복고 서사의 정서적 문법을 이어받으면서도, 그 위안을 제공하는 관계의 범위를 또래와 동료로 확장한다.

이러한 변형은 2020년대의 관계 조건과 연결하여 읽을 수 있다. 1인 가구가 증가하고 가족 형성이 지연되거나 가족 형성 자체를 선택하지 않는 사람이 늘어나는 상황에서 가족을 유일하고 안정적인 돌봄의 단위로 전제하기는 어려워졌다. 또한 공유 일터와 장기적인 동료 관계가 제한되는 일부 플랫폼 노동이나 원격 노동의 형태와 대비할 때 〈백번의 추억〉의 버스와 차고, 기숙사가 제시하는 밀착된 관계망은 ‘고된 노동 속에서도 곁에 동료가 있었던 시절’의 이미지로 읽힐 가능성이 있다. 이때 작품이 부각하는 것은 과거의 노동 조건 자체라기보다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관계가 지속될 수 있다는 감각이다. 두 작품의 사례만으로 2020년대 노스텔지어 전체가 혈연에서 비혈연으로 이동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지만, 가족만을 위안의 중심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가족 밖 관계를 노스텔지어적 위안의 주요한 준거로 부각한다는 점에서는 동시대의 관계 조건과 공명한다.

이러한 점에서 두 작품은 윌리엄스의 ‘감정구조’ 개념을 통해 설명할 수 있는 동시대의 관계 감각을 대중서사의 형식으로 가시화한다. 관계의 결핍과 돌봄의 위기는 이미 사회적으로 널리 논의되고 있지만 그러한 변화가 일상에서 어떤 외로움과 불안, 관계에 대한 갈망으로 체험되는가는 제도적 담론만으로 충분히 포착되지 않는다. 두 작품은 가족 밖에서 관계를 만들고 유지해야 한

다는 동시대의 감각을 또래와 동료의 서사로 구체화하며 이를 ‘그때는 함께 견딜 사람이 있었다’는 과거의 이미지와 결합한다. 따라서 여기서 노스텔지어는 관계의 결핍을 대신 설명하는 언어라기보다, 이미 감지되고 논의되는 결핍을 과거의 친밀성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여 위안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재현 형식으로 기능한다.

다만 이러한 기능의 이동이 곧 가족주의적 정서의 극복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다. 가족극의 ‘감동’이 희생과 침묵, 인내를 정서적 윤리로 승인하면서 구조적 위계와 젠더 불평등을 자연화할 수 있다는 지적³⁶은 가족 밖에서 수행되는 돌봄과 헌신 역시 그 자체로 해방적이라고 전제할 수 없음을 보여준다.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의 또래·동료 관계는 부모와 자식의 역할이나 제도적 가족의 의무를 재현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가족주의와 구별되지만, 함께 견디기·서로 돌보기·희생하기와 같은 친밀성의 윤리를 위안의 근거로 삼는다는 점에서 가족 중심 노스텔지어와 완전히 단절되지 않는다. 오히려 두 작품은 과거 회상에서 공동체와 친밀성에 대한 답을 찾는 기존 노스텔지어의 정서적 문법을 또래·동료 관계로 변주한다. 따라서 가족 밖 친밀성의 부상은 가족적 가치의 폐기라기보다 위안을 담당하는 관계의 주체와 형식이 이동하는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문제는 이러한 관계적 위안이 고통을 함께 감당하게 하는 힘이 되는 동시에, 그 고통을 발생시킨 폭력과 노동의 구조적 조건을 어떤 방식으로 남겨 두는가에 있다. 이는 다음 절에서 살필 관계적 봉합의 양가성과 연결된다.

4.3. 관계적 봉합과 구조적 질문의 후경화

두 작품의 노스텔지어는 행복했던 과거를 단순히 복원하는 방식으로 작동하지 않는다. 〈소년시대〉에는 학교

³⁶ 이은희, 「감정의 정치학으로 읽는 K-드라마 가족극: 〈꼭꼭 속았수다〉의 서사와 수용의 권력 구조」, 『가족과 커뮤니티』 12, 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 2025, 209~234쪽.

폭력과 차별, 남성 위계가 있으며 〈백번의 추억〉에는 고된 여성 노동과 가난, 계층 격차가 존재한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이러한 고통을 절망에 고정하기보다 웃음과 성장, 돌봄과 우정, 이별과 재회의 기억으로 재배열한다. 이에 따라 1980년대는 고통이 없었던 시대가 아니라 고통을 함께 감당하는 과정에서 관계가 형성되고 그 의미가 확인되는 시대로 재구성된다.

두 작품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전환은 고통을 견딘 시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에 긍정적인 의미가 부여된다는 데 있다. 앞의 두 장에서 살핀 수치와 불안, 축적된 분노와 그 지연된 방출, 모멸과 취약성, 상실과 부채감은 서로 다른 경로를 거쳐 이러한 긍정으로 수렴한다. 이는 〈소년시대〉에서 무력한 피해자의 위치에서 벗어나 고통을 함께 견딘 경험이 훼손된 인정의 회복으로 이어지는 방어적 안도로 나타나고, 〈백번의 추억〉에서는 단절된 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관계 지속의 확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안도로 구체화된다. 견딤이 관계의 자산으로 회수될 때 기억과 평가의 초점은 고통을 낳은 조건에서 그것을 함께 견딘 관계로 이동한다. 이에 따라 ‘왜 이러한 고생이 요구되었는가’라는 질문은 삭제되지 않지만 관계의 지속과 회복에 대한 긍정 뒤로 물러난다.

본 연구는 이처럼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갈등이 인정과 돌봄, 우정과 재회의 언어를 경유해 잠정적으로 마무리되는 방식을 ‘관계적 봉합’으로 해석한다. 관계적 봉합이란 구조적 갈등이 해소되지 않은 채 잔존하더라도 관계의 회복과 정서적 보상을 결말에 전경화함으로써 갈등에 잠정적인 정동적 종결을 부여하는 서사적 방식이다. 인정 회복형 위안과 관계 지속형 위안은 그 내용과 정동적 경로는 다르지만, 해결되지 않은 갈등보다 관계적 보상을 결말의 중심에 배치한다는 점에서 관계적 봉합의 서로 다른 경로를 이룬다. 이때 고통을 견딘 시간과 관계에 대한 긍정은 두 경로를 연결하는 공통의 정동적 기반이 된다.

〈소년시대〉의 결말에서 병태의 복수는 가해자의 반성이나 제도의 변화보다 신체적 승리와 서열의 재편으로 귀결된다. 작품은 폭력에 대응하기 위해 피해자 스스로 힘을 획득해야 한다는 인식을 제시하며,³⁷ 함께 견딘 고생의 기억은 폭력 구조 밖의 대안을 만들기보다 그 구조 안에서 살아남은 이들의 결속과 인정 회복을 확인한다. 반면 〈백번의 추억〉에서 버스 안내양 시절은 고된 노동이 있었음에도 서로가 함께했기에 빛났던 청춘으로 회고된다. 재회 이후 계층적 거리와 경쟁으로 다시 벌어진 두 사람의 관계 역시 제도적 변화나 생활 조건의 조정을 통해 해결되기보다 영례가 종희를 대신해 칼에 찔리는 상호 보호의 반복을 계기로 봉합된다. 관계는 회복되지만 그 사이의 간극을 만들어 낸 계층적 조건 자체는 그대로 남는다.³⁸ 이처럼 두 작품에서 결말의 정서적 보상은 구조적 갈등을 제거하기보다 관계의 회복을 그보다 앞선 서사적·정동적 관심으로 배치한다.

이러한 관계적 봉합의 양가성은 로런 벌랜트(Lauren Berlant)의 ‘잔인한 낙관(cruel optimism)’ 개념을 통해 구체화할 수 있다. 잔인한 낙관은 삶을 지탱하는 애착의 대

37 정명문, 앞의 글, 212~214쪽.

38 1989년을 배경으로 한 2막은 미용실과 미스코리아 대회 등 소비·서비스 문화의 공간을 전면화한다. 이는 소비·서비스 부문이 확대되고 미용 산업과 미인대회의 대중적 가시성이 커지던 1980년대 후반의 사회적 분위기를 배경으로 읽을 수 있으며, 그 이면에서 당대가 여성 노동자에게 제한적이거나 이동의 가능성을 열어 두고 있었다는 감각, 곧 노력이 상승으로 이어지고 삶의 궤적이 바뀔 수 있다는 감각을 유추할 수 있다. 다만 영례의 이동은 기술 습득과 숙련의 축적을 통해 이루어지는 반면 종희의 이동은 우연한 사건을 계기로 형성된 입양과 후견 관계에 의존한다. 이 관계는 경제적 보호와 계층 이동을 가능하게 하지만 생활과 관계에 대한 통제를 함께 수반한다는 점에서, 두 경로를 동일한 사회적 이동의 사례로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작품이 제시하는 상승 가능성은 당대의 구조적 조건을 사실적으로 재현한 것이라기보다, 집단적 낙관이라는 1980년대 후반의 특수한 조건을 서로 다른 방식으로 서사화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문제는 이 조건이 2020년대에는 재현되기 어렵다는 데 있다. 이 지점에서 작품의 구성은 ‘그때는 가능했다’는 노스텔지어를 강화하는 한편, 오늘날 사회적 이동이 어려워진 조건에 대한 질문을 개인의 노력 부족이나 운의 부재로 이동시킬 가능성을 지닌다. 다만 이는 수용자 연구가 부재한 상태에서 단정할 수 있는 효과가 아니라 텍스트가 열어 놓는 이데올로기적 해석 가능성에 해당한다. 그럼에도 노스텔지어가 항상 선한 정치를 수반하는 것은 아니며, ‘따뜻한 과거’라는 이미지가 ‘불평등한 현재’에 대한 구조적 질문을 차단할 위험은 지적해 둘 필요가 있다.

상이 동시에 더 나은 삶의 가능성을 가로막는 관계를 가리킨다.³⁹ 다만 이 작품에서 문제적인 애착의 대상은 동료 관계 자체라기보다 ‘고통 속에서도 함께였던 과거’를 위안의 자원으로 구성하는 공동체적 이미지에 가깝다. 이러한 이미지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관계의 가치를 가시화하지만, 동시에 〈소년시대〉에서는 폭력적 위계를, 〈백번의 추억〉에서는 고된 노동과 계층적 조건을 관계 형성의 배경으로 남겨 둘 가능성을 지닌다. 이러한 의미에서 ‘함께 견딘 과거’에 대한 노스텔지어적 애착은 관계적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그 고생을 발생시킨 조건의 변화를 요구하는 질문을 후경화한다는 점에서 잔인한 낙관의 구조와 부분적으로 맞닿는다.

보임의 복원적·성찰적 노스텔지어 구분 역시 두 작품을 어느 한 유형으로 고정하는 분류의 틀이라기보다 성찰의 대상과 범위를 살피는 도구로 활용할 필요가 있다. 〈백번의 추억〉에서 영례의 회고는 떠난 시간을 되돌릴 수 없음을 인정하면서도 미완의 관계에 현재에서 다시 응답하려 한다는 점에서 성찰적 경향을 보인다. 그러나 그 성찰은 친구에게 전하지 못한 마음과 관계의 미완에 집중되며 노동 조건과 계층 구조에 대한 재평가로까지 확장되지는 않는다. 〈소년시대〉는 현재 시점의 명시적인 회고와 재평가 없이 1989년을 성장과 복수가 펼쳐지는 달린 세계로 제시한다. 따라서 노스텔지어의 비판적 가능성은 성찰적 계기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그 성찰이 누구와 무엇을 향하며 어디까지 확장되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

결국 두 작품의 노스텔지어는 관계적 결핍의 가시화와 구조적 질문의 완화라는 두 방향을 동시에 지닌다. ‘함께 견뎌’의 과거 이미지는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관계가 약화된 동시대의 조건과 공명하고 가족 밖에서도 관계가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위안으로 제시한다. 그러나 과거의 위계와 착취를 관계의 진

정성을 증명하는 기억으로 회수하는 과정에서 ‘왜 이러한 고생이 발생했는가’ 또는 ‘왜 현재에는 관계가 지속되기 어려운가’라는 질문은 후경화된다. 구조에 대한 질문은 사라지기보다 관계의 지속과 회복에 대한 긍정 뒤로 밀리거나 유예되는 것이다. 이처럼 ‘고생의 공동체화’는 두 작품의 위안을 성립시키는 기반인 동시에 그 한계를 드러내는 과정이기도 하다. 관계적 봉합은 바로 이 지점에서 고통 자체를 삭제하지 않으면서도 그것을 함께 견딘 관계와 그에 대한 정서적 보상을 전경화함으로써 위안의 가능성과 비판적 한계를 동시에 발생시킨다. 이러한 양가성은 두 작품의 가족 밖 친밀성에 기반한 노스텔지어가 현재의 관계적 결핍에 대응하는 위안을 제공하는 동시에, 구조적 조건에 대한 질문의 정서적 우선순위를 낮출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상의 논의를 바탕으로 두 작품의 정동적 전환 경로와 수렴 지점은 〈그림 1〉과 같다.



〈그림 1〉 두 작품의 정동적 전환 경로와 관계적 봉합

39 로런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4, 9쪽.

5. 나가며

본 연구는 <소년시대>와 <백번의 추억>이 가족과 골목을 중심으로 한 기존 복고 서사와 달리 학교와 노동 현장, 기숙사에서 형성되는 가족 밖 관계를 위안의 중심에 배치하는 방식과 그 양가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은 작품이 재현한 역사적·사회적 조건, 이를 배열하고 의미화하는 서사적·형식적 장치, 그 결과 텍스트가 제안하는 정서적 위치를 구분하여 이루어졌다. <소년시대>는 학교 폭력이 유발하는 수치를 희극화하고 축적된 분노를 복수극의 지연된 카타르시스로 방출하며 남성 또래집단의 방어적 결집을 인정 회복의 경로로 제시한다. <백번의 추억>은 여성 노동의 모멸을 동료의 개입을 통해 돌봄의 기억으로 전환하고, 이별이 남긴 부채감을 재회와 상호 보호를 통해 관계 회복의 계기로 의미화한다. 전자가 ‘인정 회복형 위안’을 제시한다면 후자는 ‘관계 지속형 위안’을 제시한다. 또한 두 작품에서 가족은 일률적으로 후퇴하거나 소멸하지 않으며 돌봄과 보호, 부양의 책임과 통제의 위험이 혈연가족과 또래·동료 관계, 새로운 비혈연 가족 사이에 다르게 배치된다.

두 유형의 위안은 상이한 관계 형식과 정동적 경로를 거치지만 고통을 견딘 시간과 그 안에서 형성된 관계에 긍정적인 의미를 부여한다는 공통점을 지닌다. <소년시대>에서는 함께 견딘 경험이 훼손된 인정의 회복과 방어적 안도로 이어지고, <백번의 추억>에서는 단절된 관계가 소멸하지 않았다는 관계 지속의 확인과 그로부터 비롯되는 안도로 구체화된다. 그러나 견딤이 관계의 자산으로 회수될 때 기억과 평가의 초점은 고통을 낳은 조건보다 그것을 함께 견딘 관계로 이동한다. 본 연구가 ‘관계적 봉합’으로 설명한 것은 바로 이 지점에서 해결되지 않은 구조적 갈등보다 관계적 보상과 정서적 회복이 결말의 중심에 배치되는 방식이다. 따라서 ‘고생의 공동체화’는 두 작품의 위안을 가능하게 하는 동시에 폭력적

위계와 착취적 노동 조건에 대한 질문을 후경화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그 위안의 한계 역시 드러난다.

이러한 돌봄 기능의 재배치와 관계적 위안은 삶의 어려움을 함께 감당할 관계 형성과 지속 가능성이 약화된 동시대의 조건과 공명한다. 두 작품이 또래와 동료의 관계를 전면화한다는 사실만으로 2020년대 노스텔지어 전반이 혈연에서 비혈연으로 이동했다고 일반화할 수는 없다. 다만 가족만을 안정적인 돌봄과 위안의 중심으로 상상하기 어려워진 현실 속에서 가족 밖 관계를 노스텔지어적 위안의 주요 준거로 제시한다는 점은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두 작품은 가족 밖에서 관계를 형성하고 지속해야 한다는 동시대의 감각을 ‘그때는 함께 견딜 사람이 있었다’는 과거의 이미지와 결합한다. 이러한 점에서 노스텔지어는 관계의 결핍을 대신 설명하는 언어라기보다 이미 감지되는 외로움과 불안, 관계에 대한 갈망을 정서적으로 체험하고 과거의 친밀성에 대한 기억과 연결하여 위안의 가능성으로 제시하는 재현 형식으로 기능한다.

이러한 결과는 가족 중심 노스텔지어에서 위안을 담당하는 관계의 위치가 변형되는 한 양상으로 읽을 수 있다. 두 작품의 가족 밖 친밀성은 부모-자녀 관계나 부양·상속과 같은 가족 내부의 역할 구조를 모사하지 않으며 또래와 동료를 새로운 가족으로 명명하지도 않는다. 따라서 이를 가족주의나 대안가족 서사의 단순한 반복으로 보기는 어렵다. 그러나 과거를 돌아보는 서사가 현재의 결핍에 대한 답을 ‘함께 견디는 관계’와 공동체적 친밀성에서 찾는다는 점에서는 가족 중심 복고 서사가 수행해 온 정서적 문법의 연장선에 놓인다. 달라진 것은 위안의 감정 자체라기보다 그 위안을 담당하는 관계의 위치이며, 가족 내부에 집중되던 돌봄과 공동체의 이미지가 학교와 노동 현장의 우정·동료 관계로 확장된 것이다. 동시에 <백번의 추억>의 제한적인 회고와 <소년시대>의 현재형 시간 구조가 보여주듯, 노스텔지어의 비

관적 가능성은 과거에 대한 성찰의 존재 여부만이 아니라 그 성찰이 무엇을 향하고 어디까지 확장되는가를 함께 살필 때 보다 분명하게 포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의의는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가족·골목 중심 복고 서사의 친밀성 논의를 학교와 노동 현장의 또래·동료 관계로 확장하고, 이를 대안가족과 곧바로 동일시하지 않은 채 가족적 돌봄의 기능이 제도적 가족의 경계를 넘어 재배치되는 양상을 살폈다. 둘째, 노스텔지어를 시대 기호의 재현이나 회고의 정서에 한정하지 않고 고통이 가족 밖 관계의 기억으로 전환되는 서사적·정동적 과정으로 파악함으로써, 서로 다른 시간 구조와 장르, 관계 형식이 어떠한 위안을 조직하는지를 비교하였다. 셋째, ‘고생의 공동체화’와 ‘관계적 봉합’을 통해 관계적 위안과 구조적 질문의 후경화가 상호 배타적인 효과가 아니라 동일한 정동적 전환 과정에서 함께 발생할 수 있음을 밝혔다. 이는 노스텔지어의 양가성을 과거를 미화하는가 성찰하는가의 이분법에 한정하지 않고, 무엇을 기억하고 어떤 관계를 위안의 대상으로 선택하며, 그 선택 과정에서 어떤 질문이 전경화되거나 유예되는가의 문제로 살필 필요가 있음을 제안한다.

한계는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의 논의는 텍스트가 조직하고 제안하는 정서적 위치에 대한 분석이며 실제 시청자의 반응을 경험적으로 검증한 결과가 아니다. 둘째, 두 작품은 가족 밖 관계를 통해 일상적 고통이 기억 가능한 경험으로 전환되는 공통된 양상을 살피기 위해 분석 대상으로 선정한 대조 사례이므로, 이를 통해 2020년대 드라마 전체의 계보적 변화를 설명할 수는 없다. 셋째, 각 작품에서 역사 재현의 사실성 자체보다 시대적 기호와 공간, 관계와 결말이 노스텔지어를 조직하는 방식에 초점을 맞추었다. 동일한 시대를 국가폭력과 정치적 억압의 기억으로 재현한 작품군과의 비교, 실제 역사적·사회적 맥락에 대한 검토, 수용자 연구는 후속 과제로 남는다.

그럼에도 두 작품은 1980년대 노스텔지어가 과거의 고통을 관계의 기억으로 전환하여 현재의 관계적 결핍에 대응하는 위안을 제시하는 동시에, 그 고통을 발생시킨 구조적 조건에 대한 질문을 완화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이때 가족 밖 친밀성은 가족주의의 대안이나 해체를 곧바로 의미하지 않는다. 가족 내부의 역할을 재현하지 않으면서도, 과거의 공동체적 친밀성에서 현재의 관계적 결핍에 대한 답을 찾는 노스텔지어의 변형에 가깝다. 위안의 중심은 가족에서 또래·동료로 이동하지만 함께 견딜과 돌봄, 헌신을 가치화하는 정서적 문법은 일정 부분 이어진다. 바로 이 연속성과 변형이 가족 밖 친밀성의 가능성과 한계를 함께 만든다. 관계가 다시 형성되고 지속될 수 있다는 이미지는 현재의 결핍에 응답하는 위안을 제공하지만, 이를 따뜻한 과거의 기억으로 보존하는 방식은 폭력적 위계와 착취적 노동, 불균등한 계층 이동을 추억의 배경으로 남길 수 있다. 이처럼 두 작품의 노스텔지어는 공동체적 친밀성의 위안을 가족의 경계 밖으로 확장하는 동시에 구조적 질문을 유예하는 양가적 문화 형식으로 이해할 수 있다.

참고문헌

1. 기본 자료

- 〈백번의 추억〉, 양희승·김보람 극본, 김상호 연출, JTBC 방영, 총 12부작, 2025. 9.13~2025.10.19.
- 〈소년시대〉, 김재환 극본, 이명우 연출, 쿠팡플레이 방영, 총 10부작, 2023.11.24~2023.12.22.

2. 단행본 및 논문

- 권은선, 「신자유주의 시대의 문화상품: 1990년대를 재현하는 향수/복고 영화와 드라마」, 『영상예술연구』 25, 영상예술학회, 2014.
- 나은경·진나, 「디지털 시대 레트로 문화에서 '노스탤지어적 미디어 이용'의 개념화 고찰」, 『글로벌문화콘텐츠』 65, 글로벌문화콘텐츠학회, 2025.
- 문형준, 「〈소년시대〉에 충청도는 있는가?: 레트로 학원 폭력물 서사로서의 〈소년시대〉에서 충청도성의 재현 및 한계」, 『문학이후』 4, 선문대 문학이후연구소, 2024.
- 백소연, 「가족이라는 레트로토피아: 텔레비전드라마 〈응답하라 1988〉을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65, 한국극예술학회, 2019.
- 백현미, 「이후의 가족드라마와 친밀의 정동: 〈나의 아저씨〉를 중심으로」, 『한국극예술연구』 79, 한국극예술학회, 2023.
- 이대범, 「기억의 정치와 가부장제의 계승: 〈걸어도 걸어도〉(2008)와 〈국제시장〉(2014) 비교 연구」, 『한국콘텐츠학회논문지』 25(11), 한국콘텐츠학회, 2025.
- 이윤석, 「관계 단절과 외로움, 고위험사회의 징후와 과제」, 이민주·이윤석·배보람·진상현·이현성·오현순, 한국매니페스트실천본부 편, 『함께 회복력: 위기의 시대, 공존을 설계하다』, 공공의제연구소 오름, 2026.
- 이은희, 「감정의 정치학으로 읽는 K-드라마 가족극: 〈꼭꼭 속았수다〉의 서사와 수용의 권력 구조」, 『가족과 커뮤니티』 12, 전남대 인문융합연구원, 2025.
- 전영진·김공숙, 「넷플릭스 영화 〈승리호〉 서사에 나타난 한국적 정서」, 『콘텐츠와 산업』 7(5), 한국콘텐츠산업학회, 2025.
- 전종우·김연주·이종윤, 「복고 드라마의 노스탤지어가 드라마 만족에 미치는 영향」, 『미디어와공연예술연구』 11(2), 청운대 방송예술연구소, 2016.
- 정명문, 「〈소년시대〉에 나타난 폭력 재현과 모순: 레트로로 위장된 폭력의 낭만화를 중심으로」, 『드라마연구』 79, 한국드라마학회, 2026.
- 로런 벌랜트, 박미선·윤조원 역, 『잔인한 낙관』, 후마니타스, 2024.
- 프레딕 제임슨, 임경규 역, 『포스트모더니즘, 혹은 후기자본주의 문화 논리』, 문학과지성사, 2022.
- Choe, Key-Sook, "Media Cultural Politics and the Politics of Sympathy—Queen Seondeok: Dramatized Conspiracy Theory as 'Power-Narrative'," *The Review of Korean Studies* 19(1), The Academy of Korean Studies, 2016.
- Raymond Williams, *Marxism and Literature*, Oxford: Oxford University Press, 1977.
- Svetlana Boym, *The Future of Nostalgia*, New York: Basic Books, 2001.

3. 기타 자료

- 강승범, 『주거불안에 대한 가구 및 동네 수준의 취약성 분석: 한국복지패널과 빅데이터 분석을 중심으로』, 한국연구재단 최종보고서, 2024.
- 김병권·문종인·주정호, 『플랫폼 노동의 확산과 사회적 관계의 변화: 데이터 라벨러 실태조사』, 연구보고서(서남권연구 2021-01), 서남권 서울특별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2021.

Abstract

Intimacy Beyond the Family and Its Ambivalence in Nostalgia for the 1980s

Focusing on *Boyhood* and *A Hundred Memories*

Kim, Ha-Rin | Yonsei University

This study examines how everyday suffering in the 1980s is reconstructed as a memory of "hardship endured together" through relationships beyond the family in *Boyhood* (Coupang Play, 2023) and *A Hundred Memories* (JTBC, 2025), while also exploring the ambivalence of this reconstruction. Unlike earlier retro narratives centered on family and neighborhood, these series foreground peer and coworker relationships in male-centered school and female-centered labor spaces. This study conceptualizes relationships based on shared experience and mutual choice, through which care, protection, and mutual aid are practiced, as "intimacy beyond the family," and defines the transformation of shared suffering into memories of communal bonds as the "communalization of hardship."

Boyhood, set in 1989, transforms the humiliation of school violence into comedy and delayed revenge, presenting peer solidarity as a means of survival and restored recognition. *A Hundred Memories*, moving between 1982 and 1989, reconstructs friendship within a female labor community through separation, class disparities, and reunion, while redistributing care across biological families, coworkers, and non-biological families. These distinct modes are termed "recognition-restoring consolation" and "relationship-sustaining consolation."

Despite their differences, both narratives converge in "relational closure," privileging relational compensation over unresolved structural conflicts. Their affirmative remembrance of endured hardship consequently reduces attention to violent hierarchies, exploitative labor, and class inequality. The nostalgia of these series thus emerges as an ambivalent cultural form that responds to the relational deficits of the 2020s while simultaneously deferring structural critique.

Keywords *Boyhood*, *A Hundred Memories*, nostalgia for the 1980s, intimacy beyond the family, communalization of hardship, relational closure

이 논문은 2026년 7월 2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6년 7월 25일부터 8월 15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6년 8월 20일에 심사위원 및 편집위원 회의에서 게재가 결정된 논문임.